朝鮮日報
夕刊 十一日(土)
本紙朝夕刊二十二面

日本脫退後에도 軍縮本會議續開

英米佛伊外에 獨蘇兩國參加

量的制限은 依然無望

【倫敦十日發同盟特派員】英國政府에서는 日本代表脫退의 境遇를 豫想하고 이미 米佛伊三國代表와 協議한 結果 새로 海軍縮少本會議를 再建하야 四國代表間에 討議를 續行하기로 決定하엿다고 解釋되는데 또 新會議에는 獨蘇兩國政府도 招請하야 六個國 會議를 構成하게 될것으로 보이며 建艦通報案과 質的制限案을 成立시킬터이라고 解釋된다 但 日本全權團이 參加치 안는限 量的 制限案이 絶望인것은 消息通의 一致된見解이다

日本脫退는 느드래도十五日

【倫敦十日發同盟】英國代表몬셀卿은 九日 日本代表部와 私的會談을 마친以來 各國代表와 數次에亘하야 協議한結果 各國代表가모다 再次 日本代表의 共通最大限案 討議에 復歸하는데 異議가업서 大體 左의 議事手續을 決定하엿다고 解釋된다

一、十三日午後五時半 第一委員會를 開會하고 몬셀卿을 議長으로하야 共通最大限案討議의 動議를 提出하고 日本代表部의 說明을 要請할것 特히 日本代表가 各國의 脆弱性에 應하야 共通最大限案에 關하야 適宜調整을 加할것이라고 述하고잇기때문에 詳細한 說明을 要望할것

一、十四日午後도 第一委員會를 續行하야 日本代表部의 說明을 繼續하고 各國代表는 A B C順으로 所見을 開陳할것 十五日의 全體會議에서 共通最大案을 表決에 附할것 但 共通最大案을 即時 採決에 附할는지 또 愼重討議를 다할 必要가 잇는지에 對해서는 各國代表의 意見이 아직 完全히 一致되지안헛다고 보인다 英國代表 몬셀卿은司

決裂은十三日?

代表部本國에請訓

【倫敦十日電通特派員發】軍縮會議의 事實上의 決裂은 일르면 來週月曜(十三日)의 會議에서올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是非로써 決別하는形을 避하고 體面을 돌볼 뒤收拾策도 잇스므로 會議의 正式閉幕까지에는 아직 若干의 時日을 要할것이다 即 倫敦條約第二十一條 潛水艦의 戰時使用制條項의 趣旨를 五個國宣言으로할 案等이잇고 華府條約第十九條의 太平洋 防備宣言條項의 存續에 關해서는 米國은 勿論 이것을 希望치안코 日本도 구지이것을 要求치안흘것으로 當然 問題가 안될것은 明白하다 日本代表部에서는 十日早曉 本國政府에 日英會談經過를 報告하는同時에 最後의 態度에 關하야 請訓하엿는데 右는 全權으로서 最後의 態度表明에 當하야 一旦 閣議의 承認이 必要함으로인데 勿論 請訓은 單純한 手段에 不過하고 會議決裂

國際電話로 永野全權게서이지

【東京電話同盟】海軍縮少本會議는 建艦通告案을 最後로하야 決裂의 破局에 當面하게되엇스므로 同盟通信社에서는 十日午後八時二十一分 倫敦의 日本全權部 그로보나하우스에 國際無線電話를 걸고 永野全權에對하야 國民에게 보내는 메세이지를 要請하엿다 永野全權은 快히 當社의 要請을 容諾하고 例의 힘잇는語調로 會議의 難局을豫期하고 全國民이 同心協力 國威發揚에邁進하도록要望하엿다 國民에 對한 永野全權의 메세이지는 如左하다

軍縮會議가 方今 非常한 難局에 直面한것은 事實이다 이때까지 國民各位로부터 非常한 後援을 밧은것은 참으로 感謝하야 마지안는다 그러나

磯谷少將靑島行

板垣副長과重要會談

【上海十日發電通】大使館附武官磯谷少將은 板垣關東軍參謀副長과 會見키爲하야 十日上海出帆의 奉天丸으로 急遽 靑島로 向하엿는데 十一日午前 靑島에 到着하야 同日 天津으로부터 飛行機로 飛來하는 板垣副長과會見하야 北中問題와 全面的中國問題에 關하야 重要會談을 거듭하고 蔣介石政權에 對하야現地軍의 立場에서 再檢討를할터로 極히 注目된다 日本의 主張이 容易히 通하지안흘려라것은 참으로 죄송한 일이다 아모조록 國民諸君은 今後에도 지금까지와 及的 討議를 다할 方針이라 고 解釋되나 데비스米代表는 即決한後 四個國會議를 開하기를 主張하고잇다고 보이는데 前者의 境遇에는 海軍縮少會議는 十五日까지 命脈을 繼하고 後者에 잇서서 十三日로서 日本全權團의 脫退가 實現될터이다

話題解說

『스타하노프』

近日 勞農쏘베트 聯邦에는 『스타하노프』 라는 술로간이 盛行되고잇다。 이 술로간의 意識的普及은 蘇聯政府當局의 全國的計劃이니마치 모스코바 中央諸紙는 勿論 하바로후스크, 海參威等地新聞에 이르기까지 每日 『스타하노프』記事가 滿載되고잇다한다。

◇

그러면 『스타하노프』 라는 말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이것을 一言으로말하면 蘇聯政府가 採用한 勞働能率을 增進하기爲하야 採用한 勞働支援運動의 술로간이다。 이 술로간의 由來는 一九三五年八月卅日 即 國際靑年日에 돈바스의노미탄鑛에서 아크레세이·스타하노프氏의 作인 採炭레코—드가 그날八時부터 六時間의 勞働에잇서서 從來一日 七噸의採炭量에 不過하던것이 突然 百二噸을 採炭한데 基因한다。 이것이 滿天宣傳케되야 『스타하노프·메도드』는 各方面의 支持參加를어더 全國的運動이 되엿는데 昨今은 『스타하노프·메도드』는 一般工業의 領域뿐아니라 運輸交通에까지 擴大하야 農村、學校에까지 應用되고 政府는 이것을 宣傳하엿다한다。

◇

勞働能率增進手段으로 蘇聯에서 이가튼 술로간을 採用宣傳한것이 이番이처음이아니다。 쏘베트政府는 第一次, 第二次五個年計畫을 達成하기爲하야 『우다르니크』라는 술로간을 制定宣傳하야 莫大한 效果를 내엿슴은 讀者가 周知 하는바이어니와 工場勞働能率增進方法으로의 此種술로간 採用은 蘇聯의 初試驗이 아니라 資本主義諸國에서 오래前 부터 採用한 方法이다。 米國에 當時 流行이라든가 Buy Now!의 標語라든가 Swell!等의 술로간도 亦是 이部類에 屬하는것이며 이러한 술로간의 效果期間은 그 長短이 잇스므로 蘇聯政府當局者는 그效果를 更新하는 意味로, 『우다르니크』標語에 代하야 『스타하노프·메도드』를 새로히 採用宣傳하는 모양이다。

國家의 精神으로써 國家에 對하야 同心協力해주기를 希望하야 마지안는다 내가 고시프할은 이것뿐이다 會議今後의 經過에對해서는 全權이니만큼 會議의 內容을 기피 이야기할수 업서 허물치말기를 바란다 라고 述하엿다 (寫眞은永野全權)

請訓到着으로

海外兩省重大協議

【東京電話同盟】日本軍縮全權의 請訓은 十一日午前十一時 外務省에 到着하엿스므로 外務省에서는 同日午前 東鄕歐亞局長以下 各局部長等이 參集하야 首腦部會議를 開催하고 加藤軍縮課長을 招致하야 愼重協議하야 外務省局의 方針을 樹立하고 다시 午後二時부터 海軍省軍務局長 豐田中將 岡大佐 外務省側東鄕歐亞局長, 加藤軍縮課長間에 海外兩省聯合協議會를 開催하야 日本全權이 取할 方針에 關하야 協議를 거듭하는바잇섯다 事態가 極히 重大하야 日本對策樹立으로부터 回訓까지에 이르는것은 困難하다고 보이므로 右結果如何에 依해서는 或은 十三日의 委員會延期를 永野全權에게 對하야 爲先 訓電하는 處置를 取하게될지도 모른다 全權團의 請訓은 從來의會議經過를 詳細說明하고 또全權의 意見을 附한것으로 請訓內容은 如左한것으로 보인다

▲請訓內容

一、日本代表는 最善의 努力을 다하엿스나 벌서 事態는 最後的段階에 到達하엿다고 判斷한다

一、日本側은 量的制限의 審議를 主張하엿스나 英國은 通告案도 亦是 그一部가 되는 것이라고하고 米佛伊도 이에 贊同하야 對立을 招來하엿다

一、日本側은 右에 反對를 表明하엿는데 米英佛伊四國은 日本側에 옵저버로서의 出席을 希望하고 日本側이 拒否하는데잇서서는 日本을 除한 四國會議를 續行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는바 옵저버를 派遣할는지 回訓을 請한다

一、倫敦條約第四篇潛水艦使用制限條項에 佛伊를 參加시켜서 單行條約으로 할 件에 關하야 回訓을 請한다

一、右事情에 基하야 日本側은 會議를 中止할는지 또 通告案審議를 要請할는지 手續案審議의 續行을 加할는지 四個國協定으로된 기다릴는지 境遇가 如何한 措置를 取할는지 至急 回訓해주기바란다

群山海事出張所 明年度實現不能

遞信局海事課에서는 明年度豫算에 群山海事出張所新設費 約二萬圓을 計上하엿는데 大藏省査定에 依하야 削除되어 群山海事出張所新設은 明年度實現은不可能하게되엇다

奉天總領事館設置

伊太利政府不否定

【羅馬十日發同盟】伊太利公使와 일쇼르氏는 近近 滿洲國에 來하야 奉天에 總領事館을 開設할것이라는 報道에 關하야 伊太利政府側에서는 右報道를 否定치안코 奉天에 總領事館을 設置하더라도 滿洲國을 承認하는 意味는 안된다는 意味深長한말을 하엿다

南京과合作?

胡氏의去就注目

【香港十日發電通】胡漢民氏의 歸國後의 行動如何는 各方面의 多大한 注目을 끌고잇는데 消息通의 보는바로는 西南派는 中央으로부터 派遣한 戴天仇、孫科 葉楚傖 氏等의 特使와 合作會議를 開하고

一、西南政務委員會及 執行部의 權限擴大

一、西南軍事分會의 設立과 相當한軍費의 中央負擔

一、胡漢民氏의 南京入에 對해서는 相當한 地位를 與하고 또 西南派의 人物을 相當히 重用할것

等을 請願하야 그結果如何에 依하야 胡漢民氏의 南京入이 實現되리라고한다 그리고 蔣介石氏는 境遇에 依해서는 胡漢民氏에게 行政院長의 職을 讓할것이라는 觀測이 行하고잇다

하고 그런 다음에 日本의 均等要求에 對한 英、米、佛伊의 反對를 表明하야 五國會議決裂의 責任을 日本에 轉嫁케하려는데 英、米、代表間에 諒解가 成立된 模樣이다

冀東政權、建設 委員會를組織

【北平十日發電通】冀東自治政府는 管下二十二縣으로부터 各有力者一名을 各縣代表委員으로하야 建設委員會를 組織하엿다 右는 政務長官殷汝耕氏를 委員長으로하야 各縣民衆이 要望하는 바를 基礎로 各縣建設事業을統制하야 交通及 文化의 合理的發展을 圖하려는것이다

海事審判一審制

明年度에는確立

半島海運界宿望達成

朝鮮沿岸을 航海하는 船舶은 年年激增하야 海難事故도 이에 伴하야 增加되는 趨勢에 잇스므로 昨年에 比로소 日本內地同樣으로 船舶安全令을 施行하엿는데 一旦 海難이 發生한때에 이것을 審理할 海事審判은 舊態依然하야 一審判때문에 萬全을 缺할 憂慮가잇서 이二審制度確立은 半島海運界多年의 要望이라고 遞信局에서도 이數年 동안에 豫算에 所要經費를 計上要求하고잇던바 每年 大藏省에서 削減되어 그實現을 보지 못하엿다 그런데 明年度豫算에 約三萬圓(初年度九個月分)을 要求한 結果 無事히 大藏省을 通過하야 드듸어明年度부터 實現할希望을 達하게되엇다 即明年度 海事審判二審制新設로 遞信局海事課에 高等官二名、判任官四名의 職員을 增員하기로되어 半島海運界多年의 宿望이 겨우 達成되어 비로소 海運界一等級에 伍하는 陣容을 보게되엇다

日本脫退明確으로 英帝國會議開催

加奈陀濠洲印度等自治領代表와

萬一境遇對策講究

【倫敦十日發同盟】海軍縮少會議가 重大暗礁에 直面하야 日本代表部의 脫退는 必至의 形勢를 示하게되는結果 英國政府는加奈陀濠洲印度等 各自治領의 國防政策上 特히 自治領代表의協議를 要할 必要가잇다고 認定하고 十日午後三時十五分부터 우잉街의 外務省에서 이든、몬셀 兩相出席下에 事實上 英帝國會議를 開會하야 海軍縮少會議決裂後의 對策에 關하야 協議長時間에 及한結果 左의 方針을 決定하엿다

一、日本政府의 共通最大限案에 關해서는 갑작이 同意할수업는데 日本代表部를 會議에서 脫退케하는것은 英國帝國의 國防政策上 重大結果를 誘致한다 따라서 日本政府의 脫退를 阻止하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할것

一、그러나 日本代表部가 從來의立場을 固執하고 和協의可望이 업슬境遇에는 殘存한各國代表間에 適宜한 措置를講究할수밧게업다

太平洋風雲緊迫

太平洋島嶼防備制限條項을自動的으로擴張

英外相日本全權에言明

華府條約不更新하는限

【倫敦十日發同盟】永野全權은九日 英國代表와의 私的會談後 海軍縮少會議脫退後의 日本政府의 立場을 考慮하야 擧國同心協力하야 國際的孤立局面에 對應할 必要를 强調하고잇는데 傳하는 바에 依하면 右私的會談에서 英國代表 이든外相은 單純한 日英關係의 爭點을 避하고 日英關係 全面에 關하야 勸告하야 如左히 述하엿다고한다

一、英國政府에서는 外交上 늘 日本政府와 協力을 圖해왓는데 海軍制限案에 關하야 日本政府가 끗까지 强硬한 立場을 固執하고 海軍縮少會議를 脫退하는데잇서서는 英國政府는 從來의 極東政策에 再檢討를 加하고 外交政策에 關해서도 英米兩國政府가 다시 接近하는 結果에 歸着할는지도 모른다

一、日本政府가 華府條約의 更新에 反對하는 以上 太平洋島嶼의 防備制限條項을 自動的으로 擴張하야 英佛政府는 各其自國領土에 防備施設을 加할 必要를 認定할것이다 英國政府에서는 香港에 要塞를 構築하게될것이오 米國政府에서는 比律賓에 防備施設을 加하게될것이다

一、이러해서는 太平洋上의 情勢가 緊迫을 告할 念慮가잇다 日本代表部에서도 十分考慮해주기만바란다 나는 日英兩國關係의 親善友好關係를 維持하기 爲해서는 끗까지 全力을 할생각이나

以上이든外相의 勸告에 對하야永野全權은 海軍力의 均勢要求에 關해서는 日本政府에서 絶對讓步할수업는 旨를 述하엿다고解釋된다

會議決裂責任 日本에轉嫁內定

英米會談으로諒解成立

【倫敦十日發電通】이든英外相은 十四日 午後一時十五分 칼톤호텔에서 米代表部의 招待午餐會를 開催하야 米國側으로부터 데비스·스렌드레·필립스의 各代表及 빙검駐英米大使 英國側으로부터는 몬셀海相, 크레기外務參事官, 뉴질란드의 駐代表 이에 스탄호프와 밧스타는兩外務次官이 陪席하야 日本의 會議脫退後의 뒤收拾에 關하야 意見交換을 行하엿는데 日本側은 來十三日 月曜日 會議에서 日本의 均等要求를 再次 討議하기를 希望하고잇는 模樣인바 米國으로서는 이에 압서 英、伊의 各艦計畫通告案의 審議參加를 拒絶하는 者이라는것을 再宣言

日獨兩國同盟코 蘇聯邦을脅威!

몰로토프蘇首相演說

【莫斯科十日發電通】蘇聯人民委員會議長(首相)몰로토프氏는 今日 中央執行委員會開會에 當하야 如左한 演說을하야 全委員은 우뢰가튼 拍手로서 이를 歡迎하엿다

日本、獨逸、波蘭과 伊太利諸國은 지금 世界의 戰爭裡에 잇다 적어도 侵略政策의 危險을 冒하는者는 반듯이 跌하게되는것을 確信한다 蘇聯政府는 現在 他諸國과 極히 平和的友好關係에잇다 東中鐵道를 滿洲國에 對하야 讓渡한 事實이야말로 即 蘇聯政府의 平和政策을 證明하는것에 不外하다 그럼에도 日本이 不侵略條約의 調印을 拒否하고 蘇滿紛爭調整防止를爲한 國境委員會設置도 受諾치안는데 對해서는 日本의 意圖를 諒解하기 困難치안흘수업다 世上에서日獨同盟의 報道를 듯게되는데 前後하야 日獨兩國이 모다 國際聯盟을 脫退하고 또 다가티侵略的 意圖를가진 傾向이잇는 事實에 徵할때에 如斯한 報道가 말미암어오는 所以도 이것을 表明할수잇슬것이다 나는 이에 日獨兩國이 方今 蘇聯邦의 脅威인것을 指摘하는 同時에 蘇聯軍事豫算의 增加를 要求하는터이다 (寫眞은 모首相)

八面鋒

◇軍縮會議는 잘안되니 再次平和會議를 開催할意思라고。

◇悲劇이失敗하얏스니 무안프리로 喜劇한番을하여보자는 말슴인가。

◇飛行機越境問題로 日本과蘇聯이抗議越境논을 反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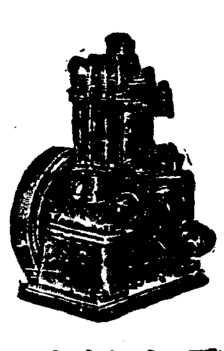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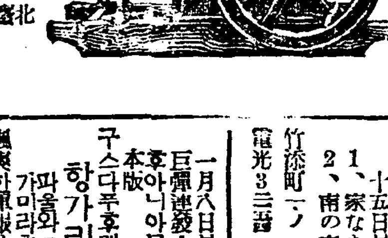
◇飛行機로 空中을 나르는세상이니 空中에도 國境線으로 만들必要가 잇다는말슴이겟소。

◇十日부터 總督府에서 朝鮮産業懇談會를 열고 大規模의극부레이와」을開始。

◇이왕에 頭腦工作을 하라거든 手足工作도 생각좀해보소、上部構造보다는 下部構造가 더 必要함을 認識함이 엇더한가。

人事·集會

▲金道源氏(京畿道警察部高等課) 一月八日午後十一時 江原道鐵原郡葛末面文惠里鄕第에서 遭外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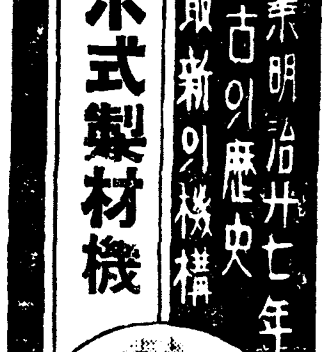
第二期男女學生大募集 (改正學則要二錢)
南大門自動車學校
第一實習場(裁判所前) 第二實習場(阿峴里) 市外各地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2)〇八六七番 (振替一一〇五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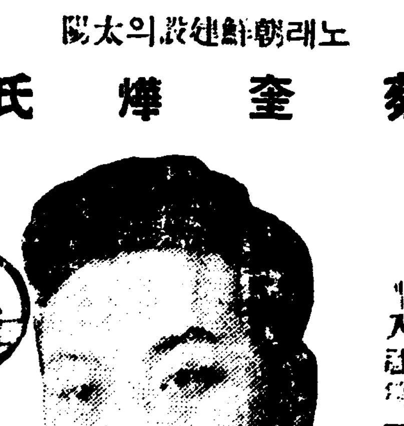
乳母 出産後滿二個月부터八個月까지의乳母를求하오니希望者는本人이來談하시옵
本町二ノ十一番地 內山

갑장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鄕을莫論하고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 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 製品은一手로引受, 細絲는供給하여들임으로서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取扱할수잇슴, 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京城府黃金町五丁目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タイピスト生徒募集
京城實踐簿記學院女子部
簿記珠算兼修三個月修了入學隨時 電車乘車割引有
男女適當不問自宅執筆○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京城府太平通大漢門橫(電本四七六一番)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時計
各國時計多量入荷
破天荒的廉賣
義州 義州町二 初音町
商報 合名會社 三一洋行
進呈 時計部





大衆料金 一月十二日부터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七時부터始映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純粹大衆的二大巨篇公開
콜럼비아社超特作珠玉篇全發聲日本版
監督……조-지·드
나는작은한사람이다
키우의一人과恰似하야世上에疑心으로빗어도쇠하무事히되어보엇스며結婚까지의善人의結論은이러하다
松竹키네마社超特作時代劇
吉野英二監督作品
まぼろし峠
市川右太衛門主演
義俠과義理로塗擦한一人의勇士는風雲이急한戰亂中에서左衝右突의大活躍을!
大週題은『水上心中』
鈴谷社作品 수에라오르는松竹作品『水上心中』
仁寺洞 電光一六三 朝鮮劇場

十二日早十六日迄五日間特別封切 若劇洋畵週間御入場料
階下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興夜二回十二時半夜六時半始
パラマウント映畵超特作全發聲日本版 グレゴリイ·ラ·カヴァー監督 クローデット·コルベール主演
白い友情
シャルル·ボワイエ ジョーン·ベネット 助演
モ早全世界の女は毛むくじゃらの男には飽きた人知れぬ惱みを胸の影に秘め澄んだ眼に憂ひを含め聲と共演するボワイエの愛戀なる魅力の凱歌!
パラマウント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匠ルイス·マイルストン入社第一回作品世界一美しき歌姬メリイ エリス主演、ツリオカーミナチ、アイダ·ルピノ助演
巴里は夜もすがら
P·C·L超特作第一回時代劇
オールトーキーエノケンブリヤント大熱演榎本健一、一人二役
エノケンの近藤勇
二村定一、高尾光子、丸山定夫 夏目初子、柳田貞一 助演
安くて面白い
若草映畵劇場 電本五二五四番

名畵鑑賞大會(青春座來京公演宣傳週間)
十二日부터三日間
晝夜二回(晝午後一時 夜午後七時)
特別奉仕料金階上30階下20均一
佛蘭西포빼스超特作日本版
離別의曲 全九卷
故國波蘭에서巴里樂壇에나타난젊은樂聖『쇼판』에게는愛戀의날이왓다風雲의祖國을생각하며그의情熱에넘치는 閨秀作家산드와 可憐한 『콘스탄치아』의戀愛에그는가슴속기피잡기어戀愛와情熱과絶望의天才쇼판에世界가열닙니다(靑樂映畵로模致珠玉篇)
英國고-몬뿌리티쉬超特作日本版
永遠의綠 全九卷
名優를網羅한豪華캐스트 께사도볼바리 監督
監督빠러시빌主演제시매쥬倫敦을風靡한名女優『하리엣그린』의引退興行으로부터三十年後今日그의필비유萬衆에게最善을다한映畵이나佛蘭西포빼스作離別의曲과同時에여러분의鑑賞을기다린다
十五日부터三日間
竹添町一ノ 電光3三五番
1、家なき兒
2、南の哀愁
東洋劇場

一月八日부터大封切
巨彈連發!三大名畵公開週間!
享아니아몬드일超特作全發聲日本版
구스다푸후래릭피氏自作自演
가피라와그나氏
파울와리호몬嬢助演
항가리아剽騎兵
颯爽한軍服을떨치고豪壯한鐵路의『리즈』에全항가리아處女의心臟은뛰노나!아름다운風景을背景으로抽破한一大絹卷!
赤澤키네마超特作全發聲映畵
根岸東一郞監督
母の心 日本語全發聲
綠音佐谷戶常雄 兒島三郞 明淸江主演
大都映畵社特作連續時代劇
中島寶三監督
狂亂雪女郞 前篇
岡部九州男 主演 近衛十四郞 木下雙葉 助演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玄海灘건너歸鄕할 四百八名新英才

現在留學生總數는四千九百五十四名

明朗! 新春卒業生進軍譜

지식조선의 내일의 터를 닥기 위하야 현재일본내지의 각지학교에 류학하고잇는 조선인학생의수는 사천구백오십사명으로서 재작년말보다도 사백삼십오명이 느럿는데 그중에서 여자는이백오십팔명이다 그재적학교의 종별로보면 대학에 오백사십구명 전문학교에 오백오십사명 대학 전문부에 팔백이십일명 고등학교에 일백륙십사명 대학예과가 오백삼십사명 사범학교가 두명 중학교가 구백팔십칠명 고등녀학교가 륙십팔명 실업학교가오백사십륙명 그바께 각종학교가 칠백삼십구명이다 또그들의 출신도별로보면 경남(慶南)이 수위로서 칠백이십일명이고 그다음이 전남(全南)의 륙백사십이명이오 제삼위가 함남(咸南)의 오백륙십오명이고 사위는 경기도로서오백이명이다 전공하는 학과별로보면 법학(法學)이제일만허서 륙백칠십일명이오 그다음은 경제학이 이백팔십삼명 상학(商學)이 일백륙십륙명의차례다 그중에서 오는삼월에 각각소속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리라고 예상되는 준재들은 합계 사백팔명으로서 그씨명과 학교와 출신도명은 아래와가다

▲東京帝大 崔三甫(全南) 張暻根(平北) 朴成大(咸南) 張壽吉(京畿) 金學俊(忠北) 柳應浩(京畿) 盧卿淳(平南) 羅英伯(慶南) 李相賢(全南)
▲東京商大 李鍾勳(咸南)
▲東京文理大 趙淑鎬(京畿)
▲京都帝大 文鍾哲(全南) 吳泰龍(咸南) 申鋼圭(慶南) 玄鳳燮(平北) 徐廷植(慶南) 鮮于亨術(平南) 馬鍾道(京畿) 劉亮植(同) 姜璽宰(同) 金顯益(慶南) 朴炳敎(平南) 都演涉(咸南) 韓熙穆(平南) 金相昌(全南)
▲神戸商大 崔演鳳(江原)
▲長崎醫大 朴健欽(平北)
▲名古屋醫大 朴喆秀(咸北) 李楨燮(全南)
▲東北大學 姜錫基(咸北) 金升卄(平南)
▲岡山醫大 崔學東(全南)
▲九州帝大 徐舜赫(咸南) 金忠鈸(全南) 金德成(平南) 鄭庸鎭(平北) 羅善徵(平南) 李鋼約(全南) 金炳模(咸北) 玄信圭(平南) 楊一甲(慶南)
▲熊本醫大 吳利錫(黃海)
▲早稻田大學 金完基(京畿) 許南壽(慶南) 兪亨植(忠南) 尹競烈(京畿) 朴利均(黃海) 金來成(平南) 金辛炫(全南) 李璉洙(江原) 孫明鉉(忠北) 李根成(平南) 金永石(慶北) 盧鼎熙(平北) 朴根昌(黃海) 許允九(慶南) 姜箕錫(京畿) 金鳳洙(忠南) 呂鶴九(京畿) 張秉坤(咸南) 趙寅相(京畿) 趙昌燮(全南) 孫永福(慶北) 金灝麟(咸南) 申泰達(咸南) 張潼模(黃海) 權五澤(慶北) 鄭台鼎(咸南) 閔忠基(黃海) 金寅守(全南) 李楨鎬(慶北) 金龍哲(咸北) 朴榮殖(咸北) 趙公述(平南) 李珏寧(忠北) 劉在鏞(咸南) 金永文(京畿) 鄭季內(慶南) 柳光烈(京畿) 徐光昱(京畿) 崔大有(慶南) 張文煥(江原) 李學秀(江原) 鄭鎔煥(平南) 金東元(咸北) 金正準(全南) 徐內義(京畿) 白雲鶴(黃海) 洪萬植(平南) 徐元燮(慶北) 曹昇達(慶北)
▲早稻田專門學校 崔河傑(咸南) 盛基淑(黃海)
▲慶應義塾大學 閔周植(忠北)
▲明治大學 權五龍(慶北) 崔王壽(慶北) 柳點祿(慶南) 車鍜鎭(江原) 金喆(咸南) 金韶(咸南) 閔鍾基(咸南) 金貞浩(京畿) 朴云順(全南) 朴在燮(忠南) 安永澤(黃海) 金衛泰(京畿) 吳鉉吉(同) 金壽永(同) 金龍涉(咸南) 柳瑞根(全北) 朴榮鎭(慶北) 權赫周(同) 白弘基(平北) 黃補興(京畿) 李旬英(慶南) 朴正然(全南) 金鶴來(慶北) 朴祈相(同) 金容俊(全南) 柳南秀(忠北) 孫永祚(慶南) 朴淳傾(慶北) 馬龍澤(平南) 金泳圭(慶南) 劉福鎭(京畿) 公俊浩(平北) 權春澤(京畿) 成明洙(咸北) 李容俊(京畿) 金鍊澤(咸南) 禹三興(京畿) 金鎭英(同) 朴永碩(全南) 李晶燮(黃海) 許南濬(慶南) 金永祚(慶北) 孫宇
▲日本大學 黃龍成(慶南)
植(慶南) 李相淇(慶北) 全忠植(忠北) 安立鎬(慶南) 李榮秀(咸南) 崔璞鎭(咸北) 吳道京(京畿) 宋稷(同) 金明壽(慶南) 金連植(咸南) 李相徹(慶南) 金泰浩(全南) 宋瑞燮(京畿) 金文鎭(同) 鄭求鎭(忠北) 崔大雄(咸南) 李泰榮(京畿) 辛永達(忠南) 權泰燮(平北) 全在虎(咸南) 金在勳(全南) 朴致祿(咸北) 李三鳳(慶北) 張珍昊(平北) 李乙永(京畿) 李珞和(慶南) 李永煥(平南) 李泰潤(江原) 文聖洙(咸南) 曹秉鶴(全南) 吳軟一(慶南) 鄭東燦(平南) 崔瑞鉉(慶北)
▲中央大學 金周殷(全北) 金容喆(全南) 金三峰(同) 李英雨(慶南) 鄭昌炯(黃海) 李海觀(咸北) 朴在然(慶北) (以下明刊에)

慶南穀物檢查官 瀆職事件漸擴大

檢査主任과檢査官을또檢擧 兩大精米所에도波及

【釜山】 조선곡물검사소 부산지소(穀物調査所釜山支所)검사감독관 통목모(筒木某)(四〇)급 동지소 동래출장소(東萊出張所)주임 박창원(朴昌源)(三九)등에 관한부정사건은 부산경찰서 고등계주임인 김경부가 엄중히 취조를 하고잇다함은 루보한바인데 그후 준엄한취조에 따라 새사실이 발각되여 사건이 점점 확대하고 잇는데 지난 팔일오후 칠시경에 동검사지소 검사주임인 전중전(田中傳)(四三)급 동검사원 신부귀수(神部技手) 양명을 검거하야다가 엄중히 취조를한후 동서에류치시켜노코 또 구일오전에 부내수정정(水晶町)에잇는 가등정미소(加藤米所製)급좌천정(佐川町) 삼본 정미소(森本精米所) 등의 대표자를불러 구속으로 호출하야다가 취조를한후 일단귀택을 허하얏다가또 의일인 십일에 호출하야다가오후까지에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고잇는데 그내용은 경찰당국이 비밀에 붓치므로 자세히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작년봄에 동검사지소원들이 경성으로야구시합원정갈비용조달에 관하야 검사감독관인 전기통목(筒木)씨가 전긔양정미소에가서 교섭한결과각기 오십원식을 수취한사실이잇고 또 검사원에게주식(晝食)을 제공한것과 그타여러가지독직사건이 발각된것이라는데 사건이사건인만큼 어느정도까지확대될는지 일반은 주목을하고잇다 각관계자의 말을듯건대 다음과갓다 한다

河越檢査支所長 談

퍽 미안하게되엇습니다 부정사실유무는 방금 경찰당국에서 취조중이오니 장차 알게될것이지오 마는 나로서는 그런 부정사실이 잇섯스리라고는 미더지지 안습니다 가등、삼본량정미소에 오십원식 바덧다는것은 본지소의 야구부에 기부로서 수취한것이지요 나는 그당시에는 몰랏습니다 금후에는 모든 방면에 일층 주의할각오이올시다

金高等係主任 談

글세요 아즉 취조중이니까 무엇이라고 말할수업습니다 마는 부정사실이 잇는것만은 사실이지요 사건이 더확대될는지도모릅니다마는 좌우간 철저히취조를할방침입니다

一面一校最終年度 今年新設百卅校

慶南、全南은昨年으로終了 面廢合으로豫定實數減少

보통학교의 일면일교의 설립계획에의한 십일년도의보통학교설립예정수는일백삼십교이라한다 소화사년에 보통학교의 일면일교계획을 세운이후 팔년만에 이계획의전부를 십일년도에완성하게되는데 전긔 일백삼십교를 완성하면 일면일교계획에 의하야 설립한총수는 일천삼십사교가되는셈이다

그런데 처음의예정은 일천칠십사교를설립하야 일면일교를완성할예정이엇스나 그후 각도의면(面)을 폐합(廢合)한 관계상 면수효가 감소하야 처음의 예정보다 사십일교가 감소한터이라한다 그리고 각도를 보면 경남과 전남은 이미 작년도에 일면일교를 완성하고 남어지 십일도가금년으로써마치게되다한다

"帝國新聞"에廣告利用 朝鮮人商界서嚆矢

보고도안살물건을안보고누가살가投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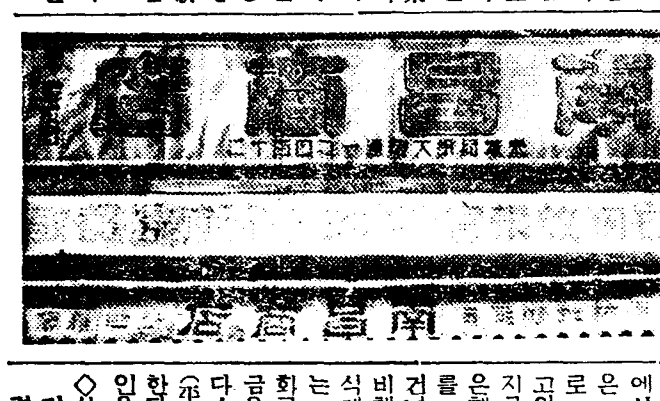
三代五十年의南昌商店 (11)

춘풍추우(春風秋雨) 오십년에 늙을줄을 모르는 남창상점(南昌商店)! 사람일생에 제일귀엽고 꼿다운순간만을 드려다보고 안젓는 이곳에도 원앙(鴛鴦)의 오고가는사이에 어언간주인이바귀기세번째—— 경향(京鄕)을 통하야 혼구(婚具)하면 남창상회를 련상하는이 적지안흘만큼 이름이선전되고

그림이 벌처잇는 이집의 그동안 거러온발자최를 살펴보자 지금으로부터 오십이년전 구리개(黃金町入口)에 『남바우』와자리를 벌녀노코 오고가는사람을 바라보는 조그만한 좌상이잇섯다 당시는 나라에서 지정한상전이 업는이들 전우상인으로서는 『홍주비전』이라는강적을 물니치기는커녕 도저히 유지하기에도 힘드럿든 · 것이다 그러나 문을굿게닷고 세상을바라볼줄모르든 당시의 우리나라도 조수밀니듯 모라드는 개화풍(開化風)자본주의렬강의 공세에는 풍전세류(風前細柳)의 이되고 마럿다 옹주비가 봉건왕조(封建王朝)의 유물로 발들판 진렬장에 귀중한 『멤버—』를 똑바로 가 되야 갈때 업필을 소상인들은 압들지못하든 이들 흘 다토아가며 차린자리를 정돈하든판이다

북경(北京)과 산동(山東)방면에서 드려오는 화상(華商)과 결탁하야 북중국에서 나오는 모물(毛物)의 무역을 시작하엿다 사드린 모물로는 『남바우』『배자』『토수』『당요』등을 만드러 팔엇다。

그러저럭 이십년을 보내고 삼대세재로 김여완(金汝完)(六〇)씨가 나서서 그의 선친과 형님의 유업을 이어 모물보다도 주로 혼구를 차려노앗다 그러나 아즉도 일반이 낫선 남창상회보다는 오백년의력사를 가진동상전(東床廛)을찻는이가 훨신만허 여러가지로고민하든끄테 서울안에서 만 팔것이 아니라 남북팔도를 무대삼아 상권을 엇기로하고 선전방침으로는 신문광고(新聞廣告)를 리용하기로 하엿든것이다 당시 류력하든 제국신문(帝國新聞)을 리용하야 련일 남창상점의영업광고를 내엿다한다 조선상업계에서 신문광고를 리용하야 영업을 선전한 경험은 이것이효시(嚆矢)라한다



졸론광고의 반영으로다 그러나 처음의일이요 일반사회에서 여러가지조소가 만헛든것은 사실이다 혹자는광고게재된 신문을 손에들고차저오고 혹은서신으로 한동안은 귀에다당을수 업는조소를바더왓다 요컨대 그들의말은 『…눈으로보고사는 물건도안십하고 살수업거든 하물며신문에 광고를하여가지고 그것보고 누가 밋고사겟느냐』하는말이다 한동안곤란을 격것스나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압서 싸워나오는남창상회의 전술은 눈압헤 명백하게 승리의 깃발이 오르고 조소하든 그들은 얼마나 압날의 변천을 즉 세상의 추세를 모르는 군들이엇다는것이 나타나고 마럿다 광고의 효력은 각지방에서 날로 주문이만허저 지금은 매년 혼구주문이 오천벌을 필두로 삼사만원의 판매액을 내이고잇다한다

지금으로부터 이십여년전 식산은행(殖産銀行)신축바람에 장소를 빼앗기고 지금 광교(廣橋)건너편에 옮마안즌후도 옛날의 비책인 신문광고만큼은 매년수차식계속하여 나오라한다 과거에는 주로 남조선 지방에서 호화로운 혼구주문이 만헛스나 지금은 신식혼인이 만흔관계인지 다소 주려들고 그대신 평안도(平安道)방면이 갑작히 느럿다한다 그는 도당국에서 구식혼인을 장려하는관계라한다

◇사진은 삼대주인되는 현주인 김여완=金汝完=씨와 점두에 걸린 『남창상회』간판

昨夜和泉町火災 男妹가無慘燒死

젓먹이아이는艱辛히救助 原因은溫突過熱?

십일 밤 아홉시 사십분분에 시내 화천정(和泉町)사십칠번지 림태수(林泰洙)(四六)의 집에서 불이 나서 그집 온돌방에 잠을 자고 잇든 그의 넷재아들로 부내 재동공립보통학교(齋洞公普校) 이년생인 재영(載英)이라는 아홉살 먹은 아이와 그의 셋재딸 재숙(載淑)이라는 일곱살먹은 아이는 무참히 타죽어버렷고 림태수의 집과그이웃집복수미길(彼多米吉)의 집두채를 태워버렷다 소방대와 삼월청년단(三越青年團)원과서대문 경찰서원의 활동으로 오후 열시반에 겨우 불을 잡엇다한다 손해는 가재약사백원어치와가옥약칠백원 가량되다하며 불난 원인은 림태수의 집에서 온돌방에 불을만히 너헛기때문에 너무 더워서 자연히 발화된것인듯하다한다 두집이다 구차한살림이므로 화재보험에는 드러잇지안햇고 불난 그장소는 인가가 빽빽하고 또한 불난집은초가(草家)이엇스므로 소방대가 출동하기전에 이미다 타버렷다한다

徽文高普에 十三萬圓寄附

故閔泳徽氏遺志로

고하정민영휘(荷汀閔泳徽)씨의유자 대식(大植) 규식(奎植)량씨는 지난삼십일에 팔십사세를일긔로이세상을떠난 그의아버지의 유지에따라 그가생전에 경영하여오든 휘문고등보통학교긔금으로 돈십삼만원을 긔부하야 이학교의 긔초를 더욱굿게하엿다한다

天氣豫報

高氣壓은 中國揚子江流域으로부터 朝鮮半島及日本方面西部에퍼지고 滿洲에는 七六四미리의 低氣壓이잇서 東進하고잇다 朝鮮、滿洲、日本內地等은흐리며 新義州附近과 日本靑森地方은 小雪이잇다 滿洲로부터 朝鮮北部까지는 昨朝보다 氣溫이놉하젓다

豫報=今夜京城地方은 흐리며 一時小雪이잇슬것이다 치위는 풀린다 京畿道全鮮도京城地方과갓흐며 明日도 今夜와갓다

昨日 最高 零下一度一 最低 零下十四度二
今朝 最低 零下十三度八
今日 正午 零下三度二

運動競技

五百米一着崔君 萬米에金君

全日本學生氷上競技에 朝鮮學生氣焰萬丈

【日光電話電通】第十一回全國學生氷上競技選手權大會 스피ー드競技는 十一日會場을 日光細尾로옴겨서 午前九時부터 開始한바 이날의 成績은 다음과가티 崔龍振君(明大)이 五百米타임레ー스에 四十六秒九로 一着을차지하엿스며 安重熙(明大)君과許景日(明大)兩君은 二、四着을하엿스며 一萬米(오픈코ー스)에서는 金永河君(明大)이 二十分五十八秒로 斷然第一着을 하엿스며 第二着에도 尹世植君(明大)이 連달아 들어되엿다 그러고 明十二日午前八時부터 五千米와 二千米繼走로써 閉會할터인데 朝鮮人 選手들을 網羅하야잇는 明大側은 得點에잇서 壓倒的優勢를보이고잇서 優勝은決定的이다

【寫眞】은 五百米에一、二着한崔安兩君과 一萬米에一着한 金永河君

▲得點=明大一四點、早大五點、慶應二點
▲一萬米決勝(오픈코ー스十名出戰) 1、金永河(明大)二〇分五八秒 2、尹世植(明大)二〇分五八秒二 3、穗口(早大)二〇分五八秒七 4、三野(慶應)
▲五百米決勝(타임레ー스) 1、崔龍振(明大)四六秒九 2、安重熙(明大)四七秒六 3、渡邊(早大)四八秒四 4、許景日(明大) 5、三野(慶應)
▲得點=明大一三點 早大五點 慶應三點

女子氷上 參加規定發表

朝鮮女子氷上界의 最高峰인 朝鮮女子體育奬勵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二回全朝鮮女子 氷上競技大會는 오는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漢江特設링크에서 열릴터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大會의 參加規定及其他事項은 다음과갓다

▲申請期日=一月二十三日正午까지
▲申請場所=京城市外新村梨花保育學校內金恩淑氏에게로
▲競技種目=二百五十米、五百米、千米、一千五百米(一人에게以上種目中에서三種目外에는申請함

올림픽東京招致에 滿洲體聯이反對

올림픽東京招致運動에對하야 滿洲國體育聯盟에서는『滿洲國을參加케하라! 不然이면 日本도올림픽을 脫退하야도조타』라는슬로간으로서 再次反對運動을 이르키고잇는데 그趣旨는『東亞에잇서 嚴正한存在를 主張하는滿洲國을 度外視하고라도 올림픽大會를 東京에 開催할必要는업다 日本은 모름직이 友邦의立場을 重視하는同時에 東亞의盟主로서의 態度를 分明히하야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東京開催의그自體에 反對하는것은아니라고한다

兩都氷上强豪 大同江서爭覇

京平氷上對抗戰開幕

【平壤支局電話】待望中에 잇든 第五回京平對抗氷上競技大會는本社平壤支局後援아래 豫定時間보다 조금늣저 十一日正午부터 數萬名觀衆으로 人山人海를 이루운가운데 練光亭下大同江링크에서 壯快한 幕이열리엇다 定刻이되자 兩軍의入場式이잇서 會長曺晩植氏의 開會辭가 잇섯고 兩軍主將金容植君(京城)의 宣誓文朗讀과 金龍燦君(平壤)의 歡迎辭가잇슨後 니어서 昨年度에優勝한 京城白狗滑氷俱樂部의優勝旗返還式이 끗나자 五百米다임레ー스로부터 戰端이 열리엇다

림질 ネオチリン(네오지린)

可恐할害毒을流行식히는淋疾。消渴의療法으로서玆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奬의最新藥ネオチリン의服用을推奬한다。本劑는當所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서殺菌力이가장强하고急性慢性은勿論(膿、痛症도解消된다(療法書進呈)
二圓、三圓、五圓、十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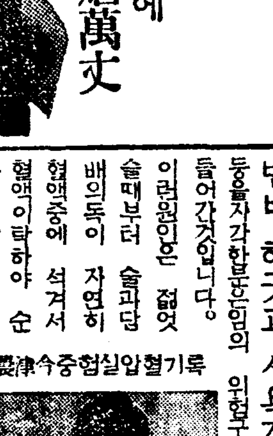
京城本町四ノ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龍淡河七番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술과담배로피가濁하야 腦溢血中風의原因이되는

血液淨化가豫防과治療의根本

【술은백가지약보다낫다】하나조곰이라도도가지내면 건강에해로우며 담배의독이나조곰도달니지안습니다 압굴 니코친의중독한자라고말할만큼 무슨심하지안는분이라도 두통、현기、상기、귀울고、억개결이고、잘안보이고、가슴우든거리고、손빨떨고、불민증나고、변비、허긋고、성욕감퇴등을자각합니다 이런것이 위험구역에 들어간것입니다。

이런원인은 젊엇슬때부터 술과담배의독이 자연히 혈액중에 석겨서 혈액이탁하야 순환이 납버짐으로 그결과는 四十살전후부터동맥경화고혈압에걸니여 전긔와가튼 증상이나타난다 이런 분은신체의 격동과격정이동기가 되야서드되여 무서운뇌일혈과중풍에걸녓다



록기혈압실험중 今津農學士

예방과치료방법

에는뇌병약과 혈압강하제만을써서는잘낫지안홈으로 아무리하여도 병의원인이되는 탁한혈액을정화하고근본부터 치료하지안흐면 안된다그에는파리잡는약으로 유명한금진불국의학박사가 완성한 리끼신이마즈는이병에꼭맛는신치료제로 전국각지의동병자가본제를먹고 훌륭한치료성적을올니여대단히깃버들하고잇다 본제는병독을소변과대변으로배설하고 전신의탁한피를정화식혀서순환을조케하고、동맥경화의원인을 제함으로、자연히혈압이내리고、상기와가튼불쾌한증상이해소되야서、무서운뇌일혈、중풍을 미연에방지한다。

중풍은낫는다

일차중풍에걸녀서불지의병이라고 락망하고잇더분이라도、본제의복용과적당한섭생법으로 전신의혈액중에잇는병독을완전히제하면、결코재발될념려도업고손발의저린증이라든지 반신불수라든지허구든증이조와저서 하로하로나어간다。늘뇌가납부고 기분이안나고 성욕이감퇴되는분、혈압이놉고、뇌일혈의 위험잇는분、중풍으로 약효가업서고통바든분은 리끼신을먹고하로라도 빨니전쾌되도록하시라。大阪市大仁本町今津化學研究所에 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시면간절한양생法과설명서를무대로진정함 리끼신藥價、二百錠一圓五〇、五百錠三圓五〇、千錠六圓五〇、전국약방백화점약품부에잇슴。

전국수백만의동병자여 이런깁분소리를드르라

소생은二十三歲로 지극히튼튼하엿던바 엇던일에실신의 과로로귀가울고현기가나고 억개가결이고잠못자고의사로부터 신경쇠약혈압항진(혈압이百九〇미리)로뇌일혈의위험이잇다고하야조화하든술과담배를 끈코、여러가지로섭생을하엿더니혈압이조금내릴뿐으로다른증상이조와지지안하야비관하엿더바 맛츰신문에서귀사리끼신의광고를보고복용하엿더니 三주일째부터괴롭고압호던억개가심갈분하여저서、숙면이잘되야기분이조흠으로복용을계속하엿더니二개월반후에는현기、귀울든것도이저바리고、혈압이百五〇까지내려가며이상이도정력이왕성하야저서가업에종사하여도아무러치안이업시일하는것은전혀리끼신의은덕이라고감사하며동병자에게도자랑한다

大阪市 佐藤佐一郎

一月十日早터十四日까지
……上映時間表……

題名	一回	二回	三回
ニユー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漫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曾の紅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學の親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一年の尖端を往き!! 春の話題を獨占せる松竹映畫
松竹發聲ニユース
眼と耳の新聞
コロムビア漫畫
道化師
ベニスの舟唄 コロムビア映畫
少年幌馬車
下加茂特作サウンド版
木曾の紅笠
高田浩吉主演
蒲田特作サウンド版
大學の親方
藤井貢、阿部正三郎、大塚君代
大學出の彼氏は『月給取』よりも『大工』の方がぬいと験をとれる サレヂ明朗篇
十五日よりお待ち兼 天保安兵衞 懸愛豪華版
洋畫專門 浪花館

新春一月七日早터特別大公開!
土曜日曜祭祝日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메도로골두윈메야社超特作全發聲 日本版
巨匠…루벤마무리안氏監督作品
구리스지나女王 全十卷
主演 銀幕의女王구레다갈보孃
◇北歐스에덴의女王구리스지나의어엽분이야기는하리웃드의女王갈보의아기꺼리가되여잇다 보는者의마음을황신나게할만한 一大傑篇!
新키네마社超特作品
社會劇 임자업는나루배 全八卷
監督 李圭煥氏
主演 羅雲奎氏 金蓮實孃
유니버살社特作品
西部劇 突貫킵손 全六卷
監督 主演 후ー트킵손氏
次週=銀河의흐르는情熱=血과戀
豫告=나는善人이다=空中艦隊=몬테이荒武者飛行
麻浦桃花洞 電龍二三三番 桃花劇場

肉體及精神的虛弱에對한再建設的强壯劑

네오톤 토닉

NEOTONE TONIC

虛弱하신분은斷然 네오톤 토닉으로健康을恢復하시라!

現代科學的原理에 符合되도록高貴한諸有効成分을適當하게配合한世界的의强壯劑 네오톤 토닉으로…

發育促進 食慾增進 血球形成 補肺 神經强壯

適應症

一般虛弱肺結核 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一般疲勞、急慢性氣管支加答兒、産褥營養障碍、傳染病經過後、神經過勞、精神沈鬱狀態、脈博不振、心臟疾患、스포ー츠前後

本劑에對하야詳細한것은貴下가信用하시는權威잇는醫師에게問議하십시요

包裝 一폰드—一個月分 半깔론—四個月分 一깔론—八個月分

네오톤토닉 直輸入發賣元 柳韓洋行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七
大連市駿河町一九
上海圓明園路一六九

文獻及說明書請求即時送呈

年頭發願

宿痾—慢性胃腸病快癒까지左記條目嚴守할事

一、恒常胃의負擔을輕케하야暴飲暴食을謹愼할것

一、飲食을充分히씹어서단단한것과液體를同時에攝取말것

一、不消化物及過熱過冷의飲食物을攝取말것

一、술담배茶커피ー香味料等을禁할것

一、食後三十分乃至一時間右便으로橫臥할것

一、下腹部에뛰를뛰고朝夕으로胃部에溫濕布찜질을할것

一、治療藥**アイフ**를服用할것

慢性胃腸病에는 アイフ 아이후

藥價

一、胃와腸의兩病에는アイフ(粉末)

試驗入 二十錢　十七日分 三圓
四日分 七十五錢　四十五日分 七圓
八日分 一圓五十錢　[illegible]十一日分 五圓

一、胃病專門에는健胃アイフ(錠劑)

七十五錠入 五十錢　三百四十錠入 二圓
百六十錠入 一圓　千錠入 五圓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合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063090

염색하는데는 요새가제일조흔철

마르기를잘하고 바래지안는닷 염색법에도여러가지

옷감에 물을 드리는데는 제일 치운때가 조타고 하야 본래부터 양력으로 일월이월의 두달을 칩니다。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녀름철에는 습긔가 잇서 말리기가 어렵고 가을철에는 햇발이 세서 바래기 쉽기 때문으로 모다 재미업는까닭이랍니다。그러나 일월이월은 또 넘어 추워서 일을하기도 거북하려니와 옷감이 얼어붓고 내지 얼어터질 념려가 잇지 안습니까? 차라리 십일월이나 사월이나 그두달의 초생쯤이 낫지 안소릿가? 이러케 생각하는것도 무리는 아니오나 일월 이월도입 긔나 따뜻한때면야물론 바대할리유가 업습니다。하여튼 요사이가 옷감에물을드리는 제철이라하오니 몃몃 쥴고자합니다。

염색(染色)을 하는데도 여러가지가 잇스니 첫재는 물감을 물에 풀고서 옷감을 통으로 너허서 드리는것과 둘재는 옷감우에 살살 물감을 발러서 드리는것입니다。뒤의ㅅ것은 갑시 싸게드는대신 먼첫것만큼 오래 가지도 못하고 빗갈도 잘나지 안는데 본래

우리네가정에서

는 몬저ㅅ것이나 알지 뒤의ㅅ것을 잘 모릅니다。그이외에도 또 여러가지의 종류가 잇스니 첫재 한감에다가 드리는것 둘재 색갈을 딴빗으로 곳처드리는것 셋재 퇴색한것을 다시 빗갈이나도록 드리는것등입니다。흰감에다가 물을 드리는것은 본래 쉽고 퇴색한것을 다시 빗내기도 그러케 어렵지는 안치만은 색갈을 가지고

딴빗으로고치어

드리는것은 용이하지 안하니몬저 그색갈의염료와 새로 드리려는염료를 얼만한 정도로타서 어떠한 빗갑이 나나 연구해 본뒤 적당하게 만지지 안한다면 생각한 빗갈보담 왕청나게 숭업고 고약한결과를 내게 될것입니다。

×

그뿐이 아니라 염색에는 재래우리네가 아지못하는 가지각색의것이 다만습니다。

물론지금쯤이야

아시는분이 적지안흐겟지만 아마그래도 모르시는분이 만치안흘까 생각합니다。

(一) 그림무늬만을 내노코아조두꺼운 조히장으로 더픈뒤 솔에다가 물감을 칠하야 그 그림무늬만을 드립니다。

(二) 물뿜는 긔게에다가 물감을 너허서는 뿜어도드립니다。

(三) 여긔

저긔를똘똘뭉처

실로 팍팍 붓들어매노코 물을 드리면 붓들어 맨 그속만은 물이 들지 안합니다

(四) 염료를 밧지 안는 풀로다가 군데군데를 발라노코 물을 드리면 그나마지의 부분만이 물들게 됩니다

×

그런데 물이 곱게 드느냐 안드느냐는 감에도 달리엇지마는 그보담도 만히 물감에 달리엇숩니다。요사이 더구나

색의장려를하는

바람에 되지안한 물감을 꿩장하게 선전해 가면서 파는수도 업지 안습니다。그러니까 물ㅅ감을 사다가는 몬저 시험을 해본뒤 본격적으로 물을 드리기 시작하는것이 좃습니다。잘못하다가는 감만 버리기도 십상팔구올씨다

家庭醫事

걷든아이가것지못해

問 당년세살된 남아이온데 잘 걷든것이 이상일간 열이놉드니 왼다리가 어떠케되엿는지 보행은 물론 잘서지도 못합니다 간신히 기여단니기는하나 왼다리는 여전히 끌고 단입니다 선생님 부대 고칠방법을 가르처 주소서 (南原서 우는어머니)

答 당신아이의 병은 소아마비병(小兒麻痺)갓습니다 이병에 대한 특효약은업스나 다음약을 써보시요

『호미가누丁錠』 두방울
單舍 三、〇
淨水 三、〇
右一日量分三回數週間服用

우에약을 쓰면서 병난다리에 안기마찰을 하는것이 좃습니다 이병은 속히낫는 때도잇스나 오래가는 병이므로 완전이것도록 계속치료를하시요 (城大小兒科 李[illegible])

부고환염(副睾丸炎)

問 저는 금년 이십륙세 긔혼남자입니다 삼개월전에 우편고환에 콩알만한 혹이 한개생겻습니다 한방의사에게 물어보오ㄴ 고산이라고 하기로 한약을 좀 복약도 하여보앗스나 차효가 업섯스며 양약도 복용하얏스나 낫지안을뿐아니라 요사이는 외편 고환이 좀부어서 평시행보에 좀조치못하오며 배가 좀압흔듯합니다 무슨 병인지 병명과 복용할 약을 하교하야주시기를 바랍니다 (慶州 一답답生)

答 고부환염 더욱이 결핵성부고환염인듯합니다。속히적출수술을 할필요가잇습니다。량편을 다수술하면은 혹생식작용이 업서질지몰으나 생명을위하야는 경에따라서 그가튼 수술도 감수하여야합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illegible])

겨울철의머리손질

이삼일에 한번쯤은 『오일샴푸ー』가 조타

치운때는 머리한번 깜으려도 여간 끈난한일이 아닙니다 치운때는 머리에 기름긔가 적어지기 때문에 몬지와 때가더잘 오릅니다

그럼으로 적어도 한달에 두세번식은 깜어야 긔분이 조호니까요 그중에 한번쯤은『오일샴푸ー』를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머리깜ㅅ기전에 기름을 발너두면 머리가 윤택해 집니다만 이즈음은 머리에 윤태가번적번적 하는것을 실혀하니까오일샴프하기전에 따뜻한기름을머리미테나 밥나문지른다음 타올을 따뜻한물에 축여짠것으로머리를 둘러싸고 증긔를 쏘이면 기름ㅅ긔를 빠라냄니다

다음은 타올을 벗기고 머리밋피부를 마찰을 합니다 이러케한다음 머리를 깜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머리가 잘빠지는분은 머리를 감은후에『베이람』종류를 뿌리고 마찰하는것을 이저서는 아니됩니다 이러케하면 머리가 잘빠지지 안습니다

當選小說 寺下村 (5)

金廷漢 作 安夕影 畵

『약갑? 야이놈아 참 네가 약갑을 내야되겟다。생무먹은놈의 드린냄새를 맛고잇지 원……』

『그림밥아니라 냄새가 좀다른걸。이사람자네 똥ㅅ구멍 썩잔헛나?』

또 한놈이 목여댄다。

『여—연놈의 대바레、마、말다리 썩는 냄새도 부-분수가 잇지!』

봉수란놈이 제법 큰소리를 한다。그리면서도 자긔는、입은그대로 제옷에 오좀을 질질 싸고잇다。

하-하-、꿍꿍……!

『아이구 이놈죽는다-』

철한이란놈이 속답답하야 압호로 멋거름석빠저나간다。

『쉬-ㅅ、쇠다리온다。』

들깨란놈이 낫게 주의를 식힌다。

소다리주사가 뒤에서 논트렁을 타고온다。한손엔 양산、한손엔 부채를 흔들면서。쇠다리주사 뭐냐고? 그러타、올케부르자면 리즈사다。그러나 속에 똥만든그가、동양잇슨 덕으로 리조말녀에 그고을원님에게 쇠다리하나 올리고서 어든『주사』란것이、오날와서는 세상이 달라진만큼 그만 탄로가 낫기때문에、모다들 그를 그러케 부른다。물론 압곳는 데서지만

『모도들 욕보네。허-날이 작고 끄리기만하니 원!』

어느새에 쇠다리주사가 뒤에 와선다。

『그런데 좀느저도 이동갑은 마자매고 참을 먹어야겟지?자、밧짜—딸에 힘을 너허가지고。……저애 봉수뒤에는 벼가 더러 부러젓고나。아-ㅅ 불까!』

쇠다리주사는 혀를 쩍쩍차며 부채를 흔들흔들한다。

농부들은 잠잣코 풀죽은 딸에 어지힘을 모은다。거즈런 벼ㅅ줄기에 쓰친 팔뚝에는 금방 피가 배여나올듯하다。그러나 그들은 눈을 질끈감고、대고동을 해낌 갈퀴가튼 손으로、어지러운 벼포기사이를 썩—썩 긁어낸다。

호-호-、공-공…!

얼굴에서 콩낫가튼 땀이 뚝뚝떠러지고、메뚜기떼들 파드닥파드닥 쥴도망질을 친다。노래는 어데로 갓든지! 남어지 염자죽!——그들은아주영 숨쉴새도 업시 서룹은다

『옛—기、요놈의 증생!』

제일 먼청맨 철한이란놈이、쫓겨나온 병한마리를 넙죽 잡아 올려가지고는 휘휘 서너번 내둘려서 훌쩍 날려버린다。

고대든 원참。농부들은 어서 목을 좀 적시려고 포프라나무그늘에 갓다둔 막걸리통가로 모여갓다。

위선 쇠다리주사부터 한잔헷다。

『어— 그술맛 조—쿤!』

하며 쇠다리주사는 잔을 일꾼들에게 돌려주고 꾸리수염을 휘휘 들어올리드니、

『그런데참 술이 한잔식 박게 안돌아갈찌 몰라。○ 정심때 쌀밥(쌀이며분一은될까?) 먹은생각하고 좀참게。그놈의건 잘못 먹으면 입못하기보다 사람죽나거든。더군다나 오늘가티 더운날에는……!』

그러나 농부들은 사발바닥이 말르도록 빨아먹고는 고초장이 벌거케묻든 나물뎅어리를 볼업게 밀어넛는다。목도 말랏거니와 배도 곱팟다。

그럴때 마츰 뿡—하고 자동차 한대가 농부들이 쉬는데까지 몬지를 집어씨우고 달아나드니 보광리압에서 머무른다。거긔서 내리는 사람들—해수욕을갓다오는보광리 젊은이들이다 동경유학을 하는 보광사『주지』의 아들을 비롯하야、모다 팔자조흔 중의 자녀들이다。

그들중에 섞겨든 보광사농사조합서긔 오기봉은 내리자바른길로 주재소에 들어갓다。

술을 못먹기때문에 식은밥두어술 뜨고난 들깨는 눈이 주재소문에 백엿다。얼마뒤에 기봉이가 나온다。

『고서방은 어더케 됏슬가?』

부지중 중얼거린 들깨。많엽시 이마에서삼자를 지우는 철한이。——우리때문에 무고한고서방이!——그들은 가마잇는자긔들이 붓그럽고 속괴로웟다。

세상을 모르는 봉수란놈은제발바닥의상처를 풀어헤쳐노코들여다보며 진흙을 끄내고잇다。다른 농부들도 행려의 시체가티 법건 배를 내노코 길시바닥우로 잔듸우으로 그늘을 차자서 긔저긔 나잡바젓다。어떤위인은 어느새 제법코를 골골고、어떤위인은 불개미한놈헌테 물렷는지 지렁이처럼 몸을 꿈틀꿈틀한다。

매암이란놈이 넘사귀나 깟다안는 놉다란 포프라나무에서 맛헤노은 놀들을 비웃드시 청섯것게 매음매음매——한다。

라디오

十一日(土曜)

聽取者五萬突破記念으로 (第一日)

◇午後六時(全日本中繼)朝鮮의正月노리風景—京城府太平通京城府民館으로부터中繼— 一、늘뛰기 二、윳노리 三、踏橋 京城府外往十里有志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高義駿

◇同七時三〇分 獨唱 현뎨作品 네曲 一、오잡워나를버리나 二、눈이어두워 三、아픈마음 四、天使어엽부다 玄濟明 피아노伴奏 A・L백키

◇同八時 歌曲 一、界面初數大葉 二、界面頭擧 三、編 四、編 五、太平歌 河圭一 安纓仙 玄琴 金雨堂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歌談 箱戱松伊 玄哲 洋琴伴奏 崔壽成

◇同九時 도라지打鈴外 一、도라지打鈴 二、노들江邊 三、靑春歌 四、방아打鈴 五、노래가락 六、唱夫打鈴 李眞紅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十二日(日曜)(第一葉)

聽取者五萬突破記念어린이大會—京城府民館으로부터—

◇午後〇時五〇分 一、開會 二、君が代(全員齊唱) 三、人事 朝鮮放送協會理事長 保阪久松 四、唱歌 西大門小學校三年女子 五、兒童劇『來日의遠足』 鍾路小學校四年女子 六、律動遊戲 安國幼稚園兒 指揮 趙錦子 七、童話『大將』 大石運平 八、兒童劇 꾀꼬리公主 京城師範附屬小學校兒童 九、唱歌 (가)하모니가 (나)山 (다)日本의旗 (라)愛國의노래 (마)로꼿드와 佛蘭西人形 水下洞普校四、五、六年女子 伴奏 李樂聽 十、詩吟과劍舞 一、詩吟 金州城外 詩吟과劍舞 松居千鶴子 劍舞 松居祥惠 詩吟 松井淸水 十一、피아노獨奏와獨唱 (一)피아노獨奏 森林의뻐국새 京城師範附屬小學校三年生 竹內孝子 (二)獨唱(가)록기의만도 (나)雲雀(종달새) 京城女子師範附屬普校二年生 鶴玉葉 伴奏 DKオー케스트라 十二、管絃樂 (一)堅實하라 이게作曲 (二)코삭크騷宴 차코프作曲 (三)瑞典衛兵行進曲 로반다作曲 DKオー케스트라 十三、라듸오스켓취 非常時의軍隊敎育 步兵第七十八聯隊陸軍步兵大尉 佐佐木高一 十四、閉會

◇同六時 兒童劇 吳鳳 全二景 (配役) 吳鳳…徐景源 官吏…李相俊 士民 一…康寅洙 同 二…趙鳳煥 同 三…金基昌 同 四…洪東植 旺新學院兒童 指揮 金泰哲

◇同六時二〇分 日曜兒童新聞

▲聽取者五萬突破記念放送과貢演의밤 (第二葉)

◇同六時三〇分 開會辭 韓相龍 大笒 細笛 笑琴과管絃樂 黨山會像中 잔도도리 下絃念佛 打鈴 金鍰泳編曲 大笒 金永根 細笛 李炳祐 奚琴 閔完植 管絃樂 DKオー케스트라

◇同七時三〇分 西道立唱 一、놀양 二、앞산打鈴 三、뒷산打鈴 柳開東 金泰運 金玉葉 李眞鳳 張香蘭 孫璟蘭

◇同 七時五〇分 歌謠曲 一、꽃을잡고…李冕相作曲 二、新二八靑春…同 三、가을의노래…金冕相作曲 鮮于 一扇 四、順風에돗달고…古關裕而作曲 五、먼동이터온다…金駿泳作曲 六、處女總角…同上 姜弘植 伴奏 DKオー케스트라

◇同八時一〇分 舞鼓 元舞 朴綠雲 脇舞 趙点紅 同 金綿姝 同 文明仙 同 文山紅 同 洪芙蓉 同 孫瓊蘭 同 金花香

◇同八時二五分 農夫歌 宋萬甲 金世俊 李東伯 吉龍鶴 丁貞烈 金素姬 吳太石 愼淑 丁南希……李奇花

◇同八時四五分 放送舞臺劇 寶劇『도라지꽃』全一幕 ——朴珍 作

(配 役)
金英根(靑年小說家)……金昌基
金哲洙(그의아버지)……王大三
李春成(산사냥捕手)……金鍾雲
입분이(그 의 딸)……卜惠淑
三평이(英根의집下人)…尹基敏
尹惠瓊(英根의愛人)……姜石燕
아주머니(哲洙의妻)……申銀鳳

라듸오・플레이・미-팅 出演 朴珍 舞臺裝置 金雲善

◇同一〇時‖(鮮滿交換放送)‖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 진양조 (나) 중모리 (다) 자진모리 二、併唱 短歌 大丈夫 丁南希 鼓手 林鍾成

十三日(月曜)

◇午後〇時五分 日用品時勢 古談 百忍堂 白重彬

◇同三時一五分 營養講座(一) 人生과食物 金浩植

◇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 獨逸(一)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洪性夏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醉漢의醉態 李晶燮

◇同八時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음愁心歌 三、寧邊歌 四、자진배따락이 五、노래가락 六、唱夫打鈴 李英子

◇同八時三〇分(東) 管絃樂 (近代現代의音樂第一回) 舞踏組曲 발토-크作曲 一、모데라-토 二、알레그로몰로 三、알레그로・삐빠—체 四、몰토・랑킬로 五、크모—도 六、終曲・알레그로 指揮・齋藤秀雄 解說・太田太郎 新交響樂團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水宮歌 吳翡翠 鼓手 池龍九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大)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 物語

◇同二時 (東) 어머니의時間

◇同四〇時二二分 と讀き(東)相撲實況

◇同六時 唱歌와피아노

◇同六時二五分 (東)農村講座

◇同七時三〇分 (東)座談會

◇同八時三〇分 (東)管絃樂

◇同九時 (東) 長唄

曆

一月十二日(日)
十二月(舊己丑)(小)十八日
癸巳・水・房・定
●冠帶時刻은辰時坐向은東南裁衣動土上樑辰時納財에吉함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謹賀新年

淸州

淸水町 廣信商會 李英模

朝鮮料理 泰平館 曺世煥

忠北淸州本町二丁目 文友堂書店 主 尹奎燮 書籍雜誌文房具 運動具樂器 ナショナルランプ マツダ電球特約店 電話一四一番 振替京城一三六三一番

雜貨卸商 尹漢淳商店

各種菓子都散賣 淸水菓子店 黃奇鳳 淸水町市場通

朝鮮料理 淸一館

金元根

淸州穀商組合

淸州本町一丁目 淸興自轉車商會 主 羅宗羲 專務 金凡大 各種修繕販賣 プリミヤ ビアス號 丸石號 七曜號 ラーヂ號

淸州邑 淸州製粉所

石油料及械專門 新築移轉特賣中 露油商會 本町一丁目

淸州刑務支所 職員一同

李熙俊

南北棉業株式會社 淸州工場

豐山產養鷄場

朝鮮料理 淸州町 華盛館 李正華 電話二二二番

高見朝藏

淸州會館

本町一丁目 金京植

淸州高普指定洋服店 高級洋服 甲子屋洋服店 主 朴淸根 外務 禹相燮

和洋菓子 松月堂

本町三丁目 普信洋服店

洋靴 南鮮洋靴店 郵便局前

李聖粲

江內面月谷 美湖商會 李翊根

江內面月谷 美湖釀造場 李翊根

本ビルグリル

日海旅館

東亞蠶絲淸州出張所

崔在玄

請負業 林憲祿

和洋百貨 和成商會 主 朴成圭

朝鮮日報社淸州支局 支局長 洪鳳憲 局員一同

淸州刑務所 職員一同

忠淸北道麵子組合

無盡金融組合

淸州郵便局

大田電氣株式會社 淸州支店

淸水町 漢藥乾材都散賣 錦北藥院

パインミシン忠北代理店 絹織布木 忠一商店 宋秉根

川島由三郎

淸州本町四丁目五四 和洋百貨 各種帽子 內外紙物 學生用品 北一商店 主 金浩柄

忠北道立醫院 俱樂部

博文堂

飲食業 陰瑨榮

洋品百貨 復來商店 淸州邑

淸州南一公普校前 永信商店 閔泳稌

北二面職員一同

ホヘト

李憲雨

東洋理髮館 李錫榮

淸水町 吳永熙診察所

金用培

牧野宗男

朝鮮忠北淸州本町一ノ二一六 銘酒 麗乃嵐 釀造元 五十嵐商店

孫大均

文義面 林振喆

名古屋

名古屋市中區東郊通四ノ一〇 電話南六七四六番 クローム 金 銀 ニッケル 日光鍍金工業所 主 趙守[illegible] 自宅中區都島町一丁目八番

岡崎市久岩崎町鳩部屋二〇 李警鎬

電磁器玩具製造業 幸島榮一 瀨戶市秋葉町 電話二七七〇番

瀨戶市北榮町 加藤野商店 電話二三五六番

瀨戶市南本町 岩井國太郎

瀨戶信用組合銀行聯合會

瀨戶市東茨 製陶業 三輪米三郎

瀨戶市會議員 池田興行

瀨戶料理業組合

瀨戶市北榮町 石川給具商店 電話二九五三番

瀨戶市末廣町中央館東 松原洋服店

瀨戶市新開地 桔梗屋支店 電話二四〇三番

瀨戶市 御料理 魚幸本店 電話二一五三番

瀨戶市 製陶業 成田金五郎

瀨戶深川神社 社司 二宮武

瀨戶榮遊覽屋組合

岡崎市 中部電力株式會社

瀨戶市助役 野田茂四郎

學藝

鄕歌解讀에就하야
特히願往生歌를中心으로
⑥ 梁柱東

○
舊說 來生歌의
法界因由丘物比丘物比丘物比
의 「丘物比丘物比」의 意味를 博士가 解得치 못한것은 차라리 意外이다。 現今에도 使用하는 말이니 이 一句는
法界가득 구물구물
이오「구물구물」은「蠢蠢」의 뜻이다
從蠢蠢 하가수물어리나니 (杜詩諺五、三十八葉)
蠢動 구물어리는 (楞嚴法語略錄、正法板·第十葉)
亦是 어떤말、特히古語의 硏究는 直觀의 便宜로 因하야 그詩語를 抵語로 살는者가 硏究上만흔 便利가 잇슴을 알것이니 氏의 苦心이 想像되는 所以다。

○
舊說 來生歌第三句―
來生比邊衣于音毛
를 博士는
『來生人家의 옷에』
라 解하야 『來生邊에잇는家에』 라고 評하엿스나、이야말로 珍奇한 解讀이아닌가。 來生邊에 이잇다함은 어느佛典에서도 누구의 말에서도 들지못한 奇說이다。 이 一句의 解讀과 같은것은 實로 小倉氏의 誤讀中에서도 壓卷이라 이를것이다。 氏의 誤讀의 動機는 『邊衣(옷)衣에』(邊의)라 解하고 따라서『于音』二字를 不可不 名詞로 解釋코저한 悲劇的結果이다。 이것은 當然히
『來生 깨옴이』
라고 읽을것이다。 대개 「比」는 「ㅅ」(衣를의가린)이오、「邊」은 「ㄱ」、「衣」는「ㅣ」、「于音」은「옴」인故로 『比邊衣于音』五字合하여서 『깨옴(悟·覺)』이 되는 까닭이다。 同歌漢譯에도 『師意覺廢俗子夢』이라하엿스니、『깨옴』이라 讀할것임은 毋論이오、더구나
茄山城一云毅山城(三國史記、地理一)
은 『處의 古調이 『거(去)』되는 訓讀이다。 이와가티 『去』音으로써 李甸의、意味는 [illegible] 읽을것이다。
(上記 比邊衣于音五字가 『깨옴』의訓讀인것으로 보아、鄕歌의 記寫法이 얼마나 正音創製에 앞섯는지를 알것이다。正音創의 關聯은 이미 上代에 萌芽이 잇는것이다。)

○
舊說來生歌의 第四句
去隱春皆理米
를 博士는
『가는봄이 다 다스리매』
라 解하엿스나、韻律에 破綻이 잇슬뿐만아니라 意味도 不適이다。『봄이 다스리다』는 말은 무슨뜻이가。아마도 氏의 錯誤는 『皆』를 副詞로 보고 그結果 『理』를 動詞로 생각하야 一字를 訓讀한 一步로부터 읽것이다。『皆』字의 寫音의 例를 보건대、
率左人(鄕云皆比知、背叛侯也)面行
(鄕傳·竹旨郞條)
王逢縣、一云皆伯、漢氏女迎安臧王之地、故名王逢
(三國史記·地理四)
前例의 叛侯의 古語『皆比知』는 무엇이라 읽을것인가。이말은
『거러치』(鄕藥字會)
라 『거러치』인것이 分明한 로 보아『거러치』는『皆』의 記寫이『皆』字는 위선『거』音의 記寫임을 알것이오、後例의 地名『皆伯一云王迎』은
『금마지』
라 읽을것이니、『금』은『王』(尼斯今·王儉·金馬·普馬·熊·黑·錦·劍·等等)의 뜻이오、『맛』은『迎』『逢』의 뜻이므로 語順으로 漢譯하면바로『王逢』『王迎』이오、與寶은 同地屬『遇王』縣이라 하엿스니 이는 漢文式 語順이다。그러면 一云皆伯이라 함은 무엇인가。『皆伯』은『금마지』의 寫音이니、『皆』는『그』요、『伯』은 字音에 맛을모다쓴 것이라 讀하엿다。그런데 『皆伯』이나『王逢』이나 모다 『금마지』란 一語이니、前者는 [illegible] 字의 寫音이오、後者는 [illegible]의 譯이다。因音地理志에도『王鳳縣一云皆伯』이 잇는데 『皆』字가 對譯되여잇다。
以上으로써 『皆』字는 『그』或『거』인것이 分明하게 되엿다。이어서 『理』는 『리』인죽 『皆理米』는『그리며』로 읽지안흘수업고、上揭의句는
『가는봄 그리며』
라 읽게된다。『그리』는 慕·戀·憧·憬의 뜻을 가진 것이니、禮敬諸佛歌에 나오는『慕呂』가 바로 그것이다。

現代文學의課題인 人間探求와苦惱의精神
……創作에잇서個性과普遍性等……
❶ 白鐵

今日의 文學의 中心課題는새롭은 人間型을 探求하는데잇다 나는 이러한 A、지이드的文句를 가지고 이論을 出發하려고 한다 數年만에 接해보는 文壇의 모든現象에 對하야

▽…獄舍 를나온囚人이 無限히 넓은 하늘과 自然의들과 都市와行人에 向하야 虛無的으로이러하고십흔 衝動과 類似한感激에 이끌리어 나는秩序업시 모든것을 耽讀해가는 途中에 最初로나의 心境을 激動식힌것은『……今日은 새롭은 人間을 獲得하는것이 위선 緊要하다…』는 지이드의文學家의任務에 對한 宣言이엇다 一定한條件(西歐에서는 아직前途遼遠한希望이나!等) 下에 지이드가宣言한이말은 나의鄕해진神經에一種의 不安을 주리만치 巨大한 激動과 興味를 加重하얏다 나는 처음 얼마 동안은 아마 이激動과 興味는 내自身의 個人의 心境에만 局限된것이라고생각하얏다 왜그러냐하면 이人間探究의 問題는 내自身이 數年前에 四面의 攻擊과 非難가운데 純全히 孤立된 狀態에서 그것을 持論하든때의 苦悶과 孤獨의 記憶이 이지이드의 宣言에 接할때에 感傷的으로 回想되며 同件도되고잇다는 事實을 反省할때에 그러한 내個人이 이宣言에 對하야 一種의 感激을 가지고 臨하는것은 實로 當然한 現象이라고 생각되는까닭이엇다

하나 이問題는 내가 國際作家大會에 參加한 其他 作家와 評家의

▽…論文 서울 또한 읽고 그나후의 幾個의 一般文壇의 現狀을 普見하는데따라서 이지이드의 宣言은 내 個人에 限하지안코 各國 文學人에게 最大의 注目과 興味를 集中하여잇는事實을 理解하는것은 實로 容易한일이엇다。 그리고 생각하면 이 人間探求에對한 文學任務의 宣言이 그와가튼 巨大한 關心과 注目가운데 物議되고잇다는것은 決코 偶然의 現象도 異常한事實도 아닌것하다 도리혀 그것은 當然 到達해야 眞實性에到來한데 不滿한 現象이엇다 왜 그러냐하면 過去와가티 文學이 自身의 獨自의領域을 固守하지 못하고 그存在의 理由를 一個의 政治的任務에서 規定하려는 偏向에떠러저 外部的으로 政治와 이데올로기에 從屬되여 오든것이 最近年에 와서 그와가튼 拘束과偏向과 假象에서 벗어나 文學그自身의 領域인 말하면 一層人間的인것으로 歸還하려고하는 이轉換期에잇서서 人間獲得、人間探求가 文學의 中心課題로되는것은 너무나 當然한現象이 아닐수업다 그럼으로 이問題는 지이드一個人의 文學課題가아니고 全世界文壇의 主要의課題로서 될것도 當然한일일것이다 그리고 同一한理由下에서 우리들의 조선文壇에잇서도

▽…良心 잇는作家와評家에依하야 이 問題에對한 關心이놉히가고잇는듯하다 人間描寫의 傾向 人間에對한探求、人間에對한硏究、個性의問題等 나는最近에 읽어본 諸氏의主要한論文과感想文가운데서 그關心이놉히가는現象을 어테서나 指摘할수잇섯다 그리하야 이人間問題는 確實히 今日에 우리들의文壇의中心으로되이되여 流行되고잇는듯하다

以上에指摘한文壇의現象이 眞實을同作한現象이라면 이人間探求의問題에至하야는 우리들은 그것에대한 조고마한自身의 功績을 입부려 지이드에讚淡한愛情과後悔가여기에잇다 그것이單純히 한偶然的現象이라고 하더라도 이人間의問題에 대하야는 먼저도指摘한바와가티 지이드의 宣言이 輸入되기數年前에 우리들自身의 發意에依하야 提唱된일이잇지안햇든가? 그리고그때에잇서 이文學課題에對하야 一定한討論와關心을 가젓다고하야도그것은 조금도不自然한現象은 아니엇슬것이다 그當時에잇서 過去의機械的創作方法問題가 否定되고 새롭든리알리즘이提唱될때에 그前까지의 여러가지名稱下에提唱되든 모든리알리즘問題가 너무外部的으로

▽…物質 의社會 自然等 空虛한部分에 浪費한 經驗을 反省할때에 그때의 文學現狀에 對하야 좀더 纖細한 共感力과 銳敏한 觀眼과 通徹力을가진 作家評家면 누구나 當然히 이人間的인 一層恒久的인 部面에 聽眼하는것은 容易한일이엇스리라고 생각된다

漢詩
桐岡考選

迎春―押生
選外佳作之一 京城 李承高

一臥漢濱春復生
梅前詩思不勝淸
山川依舊人多老
日月方新業未成
妻瘦偏深迎睃喜
母衰尤切報晞情
雙柑斗酒貧猶辦
須學戴顒聽早鶯

文藝雜感(一)
『朝鮮말文學』의 世界的樹立
宋影

努力과實力

淸潔한 皎月은 언제나 말을 안합니다
『내얼골은 玉가티희고 몸가티 맑고 거울가티 밝다』
라고 自己의 총찬을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玉燈이니 姮娥니 하면서 [illegible]도하고, 玩賞도합니다 사람뿐아니라 개도처다보고 바거히 짖고 까치도 잠을깨여 춤추듯이 날니다입니다
艶麗한桃花도 亦是 沈默속에 웃고만섯습니다 그러나 含人잔을들고 蜂蝶은 너훌거립니다
淸香은 百어千겹 싸고싸두어도 밧그로 냄새가 스며나옵니다

果實은 익으면 저절로 떠러지고 물이끄르면 김이 熱氣가티 자욱해집니다
誠於中이면 形於外입니다 實力이 蓄積되면 成實이됩니다 成實이 되면은 世上이 認定합니다
有名한物件은 物件自體가 有名한까닭입니다 偉大한 功績은 偉大한人物의 實力의 發顯입뿐입니다
우리들 創作에 從事하는 동무들도 먼저가 實力을 養成하여야 할줄압니다
習作한篇을 써노코도 世界的作家가 된듯이 自誇하는者는 成功과 담을싸친구입니다

戱曲한篇만 發表되여도 自稱 朝鮮의 『입센』입니다 小說한篇만 發表되여도 朝鮮의 『哥ー키』입니다
朝鮮에는 하프트맨도만코 조라도 數업습니다
朝鮮의 文壇가티 急造된 大家가 簇生되는곳도 別로 흔치가 안흡니다
이 夥多한 大家들은 大槪가 『입』만으로 일우어젓읍니다
挾泰山以超北海도 입만으로는 누구나 다ー말할수잇읍니다 먼저가 實力입니다 名聞은 나중입니다。
實力이업시 어든 一時의 虛聞은 大海의 一泡입니다 自家宣傳에 汲汲하는者는 그만큼 實力의 微弱을 나타내고잇는 무리입니다。
朝鮮의 文壇에는 『나博士』가 꽤만히잇습니다。
『나는 어떤사람이고 나의 作品은 偉大하고 내가 가진 主觀은 正當하고……云云하는 『난』『나의』、『나는』、『내가』만 專門으로 쓰고지내는 나博士 말입니다。
醜女가 粉을만히 발느면 한층더ー醜態가 됩니다 實力업시 나만宣傳하면 結局에는 正體가 暴露됩니다
實力은 努力의蓄積입니다
三年동안 날마다 練習하든것도 사흘동안만 쉬면虛事가된다고 어떤 天才의提琴家는말햇습니다
偉大한 『完成』은 1%의天才와 九十九%의努力이라고 亦是 어떤 天才의發明家는 말햇습니다
努力은生活의法則인同時에 藝術의法則입니다 不斷의努力으로 實力을 蓄積하면 偉大한文學은 創造되여집니다
나는 새삼스러히 여기에 留意가되고 따라서 激勵하고잇습니다
균쓰향은는 二十살부터 四十살까지 近二十年동안이나 投稿生活을햇습니다
그러나 徹頭徹尾로 落選의 쓴맛을 맛보왓습니다 하다못해서 廣告主에게만頒布하는 廣告雜誌에서까지 그의原稿는 薄待되엿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임업시 創作을 繼續햇습니다
怨望보다도 自省을만히햇습니다 그래서 그여코 『飢餓』라는 大作으로 世界人을 놀래이엿습니다
劇의쓰피어는 劇場의 小具道쟁이로써 出世를햇습니다 쓰다가 내여버린 習作戱曲이 六十篇以上이나 되엿다고합니다
떠스토에프스키는 書齋는커냥 貰房한間도 업서서 술집地下室 술동무와 公園뻰치우에서 그의 初期의作品을 썻다고합니다
입센은 三十年동안이나 異土로 放浪하면서도 數十篇의大作을完成식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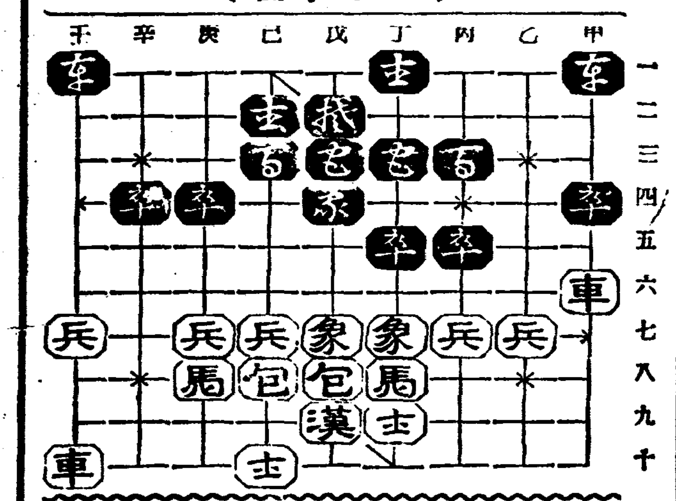
今春 各學校試驗細規
(詳細는當校로直接問議하시요)

京城高等工業學校
▲募集人員 約八十一名 紡織科十五名 應用化學科十八名 土木科十八名 建築科十五名 鑛山科十五名
▲申請期限 一月十五日부터 二月末日까지
▲試驗日字 三月十六日、十七日、十八日
▲試驗處所 京城東崇洞同校內
▲試驗科目 國語(講讀、作文)、數學(代數、幾何、三角) 物理

◇京城法學專門學校
▲募集人員 約六十名
▲申請期限 二月末日限
▲試驗日字 三月十六日、十七日、十八日、十九日 (每日午前九時開始)
▲試驗處所 京城光化門通同校內
▲試驗科目 國語(解釋、書取、作文) 英語(英文和譯) 數學(代數) 歷史(國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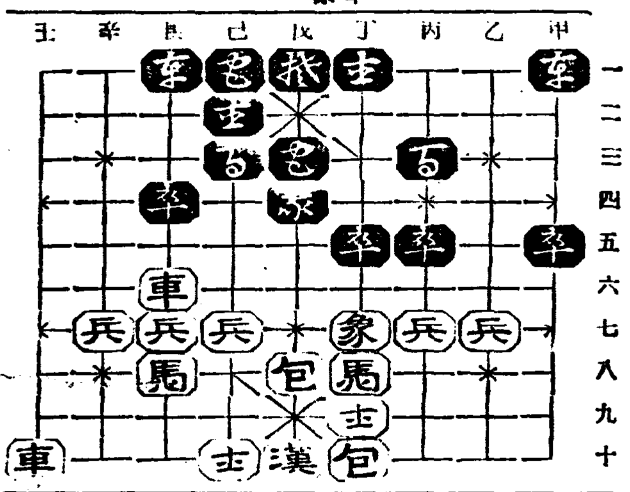
將棋名手對手局譜(三)
本社主催
楚先手 一象 李在鳳 漢 丁奎東

◀二十手圖▶



◀三十手圖▶

丁三卒―己二
八包―丁十
甲四卒―甲五
戊七象―庚四打卒
辛四卒―庚四打象
甲六車―庚六
壬二士―庚一
壬七兵―辛七
戊二包―戊一
戊九漢―戊十



初春의幸福을불느는色!
ウテナ 固煉白粉
우데나의 살빗은
日本美人을 代表하는基準色 高尙한愛의色 明朗한젊은色
그리하야 따뜻한맛이도는 幸福의빗
純日本美의 傳統의白色 × 새로운美에 美人의살色 × 젊고젊은魅力에 濃肌色 健康色
正價各色 三十五錢 五十三錢
우데나固煉白粉의 潤澤나는化粧에는 우데나花印크림의 아름다운基礎美肌工作이 꼭必要하다。
白粉업새는데、洗面特히、주무시기前에는우데나花印크림을 使用하여주십시요。
000091
東京·久保政吉商店

水谷八重子主演 大尉の娘 (新興キネマ特作 オールトーキー) 近日封切
11.1—5.2

賀正 陝川 元旦
陝川郡
陝川郡農會
陝川郡各面職員一同
陝川稅務署
陝川酒造組合
陝川金融組合
陝川産業組合
陝川醫院 崔祥旭
同仁醫院 文鐵洙
道議員 李景祥
陝川郵便所長 冶爐郵便所長 久光三郎
陝川郡三嘉 宣和醫院 院長 崔燉七
陝川郡三嘉 鄭那海
陝川海印寺 住持 李古鏡
李世圭
李光洙
姜世鉉
慶南陝川邑內 陝川酒造合資會社 電話一五番
陝川郡龍洲面 土木請負業 裵鳳乙
陝川邑 李昌弘
李文基
川昌貨物自動車部 李源銘 電話七番
李東吉
李聖奎
釘宮鋼五郎
陝川郡三嘉 柳孝太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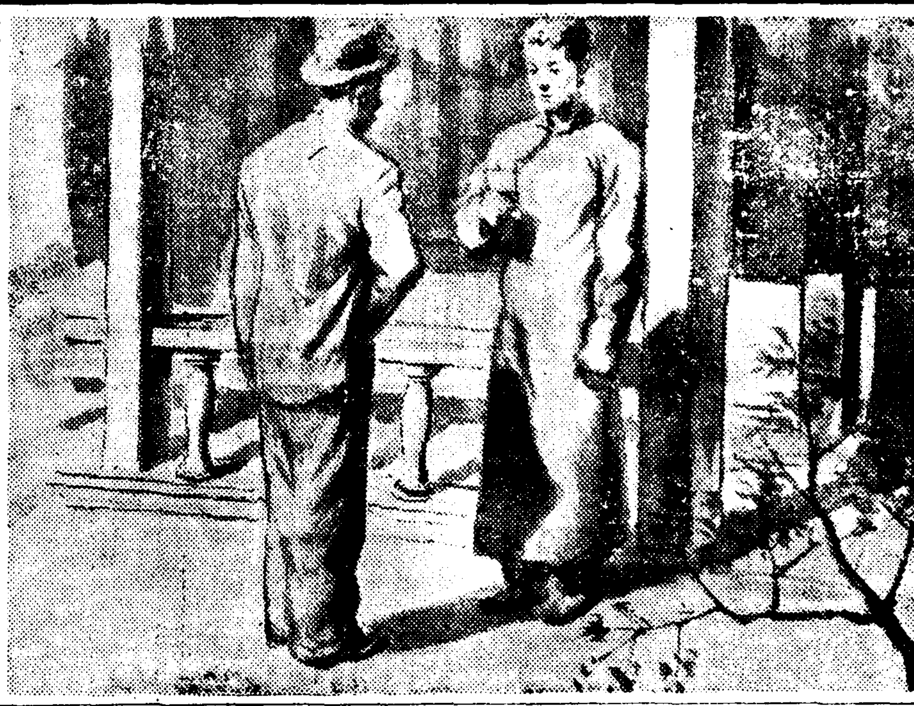
黑風 【223】

韓龍雲 作
金熊超 畫

참사랑 (七)

그때에 미국에 망명하얏든손일선이가 청국 경찰의 손에 부들여서 청국으로 온다는 소문이떠도랏다 그리하야 갓곳마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동시에 다소의 혁명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수선거리면서 마음이 설네이기 시작하얏다 그러나사실은 그러케된것이 아니라 손일선이가 미국 워싱톤에 망명하야 잇슬때에 어찌하다가 미국에잇는 청국 영사관원에게부뜰녀서 영사관 구내에 갇금을 당한일이 잇섯다 그리하야 영사관에서는 본국정부로 보고한뒤에 손일선을 청국으로 압송하랴고 하얏다 그런대 손일선의 갇금 되야잇는 처소엽헤는 난로용의 석탄고깐이엇다 그리하야 가끔 석탄을 내어가는영사관뽀이가 잇섯는대 그 뽀이는 열 칠팔세 가량되는 아해엿다 손일선은 벽하나 새이에 둔 처소에서 늘 그것을 보게되얏다 하로는 손일선이가 그뽀이를 가만히 불너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쪽지하나를 전하야주면 홋일에 크게은혜를 갑겟다는말로 달내어서 자기의 아는 미국사람에게 구원하야 달나는 쪽지를 보내게되얏다 그리하야 손일선의 편지를 바든 사람은 곳 미국정부에 말슴하야 손일선을 청국령사관으로 부터 빼어오게 되얏는대 외국에 망명하야잇는 정치범인은 그나라 정부의 량해가 업시는 마음대로 잡지못하는것은 국제법상에 정하야잇는 까닭이엇다 그리하야 손일선이가 청국령사관으로 부터 버서난것이 사실로는 짤막한 한로막에 지나지안는것이나 실로 활동사진의 한장면이나 고대소설의 한구절 가려서 내외국인의 평판이 되얏든것이다

그러한 사실이 완전이되야서 손일선이가 잡혀오다고 헛소문이 나서 한입 두입 건느는것이 청국의 사백여주 사억만인구가 거진 다 수선거리게 되얏다



인심이라는것은 거짓말이고 참말이고 어떠한 기회에 흣치이기 시작하면 좀처럼 걷잡을수가 업는것이엇다 얼마아니되야서 손일선이가 잡혀온다는말이 빨간 거짓말임을 아랏스나 그때에 동요된 인심은 가라안지 아니하고 계속하야 들끓게 되얏다

청국의 혁명당원들은 탄압을 받은뒤에 각처로 분산하고 잠복하야 잇다가 시기를 맛느못이 그러한 기회를 리용하야 국민의 불안을 선전하고 혁명사상을 고취하기에 분망하야서 일반인심은 수습할수업슬만콤 동요되얏다 그리하야 혁명당원의 중요인물들은 혁명당의 재조직에 착수하야서 암암리에 동지들은 서로 호응하야 규합하는 중이엇다

하로는 왕한을 차저온 청년이 잇섯다 그청년은 운남귀주(雲南貴州)등지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한번 보기에도대단히 조흔 청년이엇다 그청년은 왕한이가 드려오라고 하얏스나 도로혀 왕한이를 들밧그로 나가자고 하얏다 왕한은그청년을 따라서 자기집뒤의 조그마한 언덕으로 옮나갓다 그청년은 사방이 뵈일만한 조금놉흔 바위위에 안저서 왕한이와 문답을 시작하얏다

『당신이 서왕한씨지오?』

그청년은 처음 차질때에 왕한인줄을 아랏건만 재차 무럿다

『아까 말하지 안엇소? 누군줄 알고서 차저왓기에 또뭇소?』

왕한은 처음부터 그사람의행동이 수상한데다가 설명을 다시 뭇는데에 조금 불쾌하얏다

그사람은 가방에서 무슨사진을내어서보는대 왕한이가언뜻보니까그것은 광동에잇든혁명당본부에서 여러히 기념사진으로백인것이엇다 그사람은 그사진에서왕한의 사진을 가리치면서

『이것이 당신이지오?』

하고 뭇는다

조금 주저하다가

『그럿소』

하고 대답하는 왕한은 더욱 의심스러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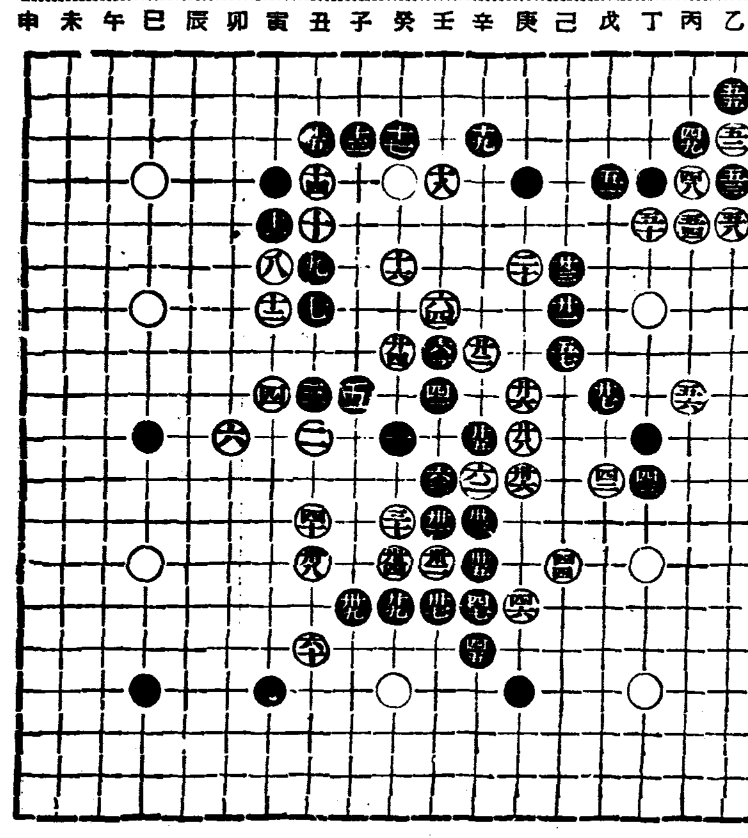
米國美男俳優 『길버트』氏逝去

【로스안젤스九日發同盟】『빅그파레―드』、메리―위―도』等의 主役으로서 有名한 米國美男映畵俳優『존·길버트』氏는 九日하리웃드』의自宅에서 三十九歲를 一期로永眠하엿다。

圍碁對局譜 ─4─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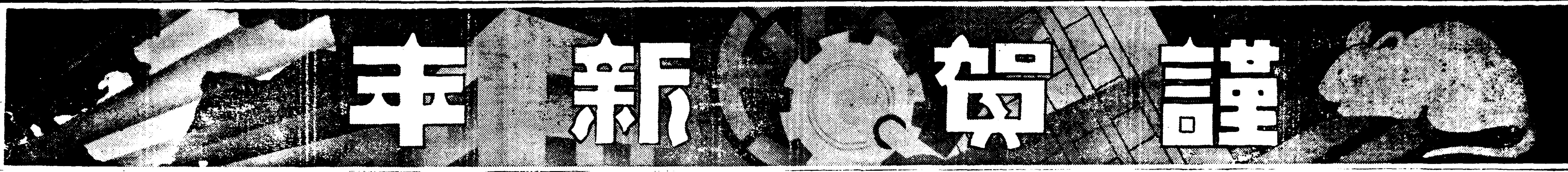
白 蔡極文
黑 丁奎春



● 四九 丙의三
○ 五〇 丁의五
● 五一 戊의四
○ 五二 乙의三
● 五三 乙의四
○ 五四 丙의五
● 五五 乙의二
○ 五六 丙의九
● 五七 己의八
○ 五八 乙의五
● 五九 甲의三
○ 六〇 丑의十五
● 六一 壬의八
○ 六二 辛의十一
● 六三 壬의十一
○ 六四 壬의七

◆對局者談

白이 先着으로 丁의七(風內)를 依例成棋하니 別無神奇나 黑이 만일 先着하엿스면 白이 落後를 當할것이다 推此觀之면 先着이 上策일가하노라 黑이 丑의十五 白을 應치안코 壬의八로 衝斷함은 辛의七로 衝斷함 秘計나 白이 癸의九로 衝進秘計를 또한 가젓스니 敵手相對에 計不入量이로다 黑이 丑의十五 白을 如何키 採應할는지 孰勝孰敗가 又是到來하엿다



哈爾濱

哈爾濱許公路四八ノ三 永安輪船公司 經理 林靜齋 電話六〇一四番

哈爾濱鐵路局 金漢奎 朴尙熙 金時允 朴炯鍵 張勝龍 金仁基 金永珍 金一

哈爾賓 朝鮮人民會

哈爾濱道裡斜紋街五〇 哈爾濱金融會 電話四一八三番

濱北線海北鎭 善牧農場

哈爾賓道裡中央大街九八ノ二 舒蘭煤鑛公司 許一觀 電話二三七五番 四〇〇三番

哈爾濱 金富成 電話六三六八番

哈爾濱埠頭區中國三道街二〇 日光堂藥房 韓光俊 電話二〇一二番 賣藥 醫療器械 衛生材料 化粧品類

滿洲國哈爾濱市道裡買賣街百二十六號 業の慰安塲は 朝鮮料理 銀河 電話四千五百九十番

哈爾濱道外十一道街 大亞細亞日語學院 院長 崔泰山

哈爾濱道外北四道街 松濱旅館 金仁洙

哈爾濱道外許公路四八 最新流行 高級洋服 婦人子供服 附屬品販賣 新滿洋服店 主 白南松 邊仁俊

哈爾濱道裡買賣街一二四 金賢德 電話六三九〇番

哈爾賓道裡田地街三號 遠洲洋服店 玉振國

大哈爾賓馬家溝文昌街文端街角 オリエンタルビール釀造合資會社 電話六四四二番

哈爾濱一面街 石元旭 電話六六二七番

哈爾賓道外大新十道街十九號 協助會本部 電話九、三三七七

哈爾濱 朝鮮人農務稧聯合會 電話四一八三番

哈爾濱 無名氏 電話二二九五番

濱江省實業廳 林漢龍

哈爾濱道裡斜紋街四〇 金一元 電話四三〇四番

哈爾濱田地街五二 全泰國

哈爾濱道裡田街一二 客室完備 親切丁寧 朝鮮旅館 主 趙光吳 電話七〇六一番

哈爾濱道裡外國六道街一八 特産物 貿易商 四井商會 電話六四三一番

哈爾濱道外南和街六二號 匿名組合 翔孚公司 電話道裡七一四四番

哈爾濱 李善柱 電話五一〇八番

哈爾濱道裡中國十五道街一八 客室完備 親切丁寧 大同旅館 主 李貞夏 電話六四五五番

哈爾濱八站中馬路 日出精米廠 金靜來 電話五八七一番

哈爾濱許公路口西八〇號 五眼玩 五眼水 五眼利 實其 民坤 朝鮮고무신 總批發 三民號 電話五九二一番

哈爾濱買賣街 益泰號 主 張京浚 電話六一五二番

哈爾濱傅家甸太古九道街 永豐號精米所 主 李泰英 電話二〇一〇番

哈爾濱承德町四號 東豐泰精米所 朴明鎭 電話六三五九番

哈爾濱道裡一面街 吳在源 電話六六二六番

哈爾濱道裡買賣街一六九 紅梅館 朱昌協 電話六一七七番

哈爾濱道外中馬路一號 東明カフェー 主 權音全

哈爾濱桶樓街 雲鶴樓

哈爾濱道外桃花巷 松江樓

哈爾濱八站南馬路頭道街三五 糧米貿易 委託販賣 新興商會 電話五五一七番

哈爾濱水道街 崔根 電話七〇七二番

哈爾濱黎明街 趙奎喆

哈爾濱許公路四八 李春基

哈爾濱承德街(濱江驛前) 和洋製菓 大山堂 閔炯一

哈爾濱道裡田地街 豊泰號精米所 電話七〇八五番

哈爾濱道裡外國七道街二四 二層洋屋 親切叮嚀 室內沐浴 泰平旅館 滿洲國道局指定旅館 電話四二六五番

哈爾濱道外許公路八四 農具 穀物 肥料 青邱洋行 電話七二〇六番

哈爾濱道外長春三道街五〇 和洋雜貨 信本洋行 朴熙山

哈爾濱道裡地段街三七 亞細亞洗布所 兼營 亞細亞商店 電話六三五一番 主 崔昌日

哈爾濱道外大新五道街 松江藥房

哈爾濱八區景陽街 賣藥 醫療器械 衛生材料 化粧品 東京堂大藥房 電話五〇四一番

哈爾濱道外長春頭道街三三 三省堂藥房

哈爾濱傅家甸純化街 江西堂藥房 朴[illegible]來

哈爾濱道外[illegible] 東海樓 電話三三七三番

哈爾賓承德街二四九 ミス朝鮮 電話九三二七四番

哈爾賓道裡一面街 東洋館

哈爾賓買賣街 大成館 朴正錄

哈爾濱傅家甸市場外純化街 北滿醫院 李[illegible] 電話三二四一番

哈爾濱 濟世醫院 電話二八六二番

哈爾濱道外北五道街 高麗醫院

哈爾濱道裡 大東醫院 電話六一四八番

哈爾濱中國十三道街 李圭殷 電話四四五三番

哈爾濱道裡一面街二八 哈爾濱館 趙潤[illegible]

朝鮮日報社哈爾濱支局 支局長 安鳳梧 記者 金鳳斗 黃致坤 白一星 寫眞班 安基鎔 集金員 金芝華 電話六一五六番

靈山

辛容文

金長秋 黃喆館

金在鳳

鄭麟朝

曺圭喆

吳法煥

靈山產業組合

尹泳規

朴基七

桂城麵子會社 朴濟勳

靈山面長 河之浩

唐津

唐津郡泛川面內鯨里 朝鮮農業株式會社 義村作藏 孫錫允

唐津郡順城面中方里 宋鎭瀅

唐津郡合德面新里 朴炳烈

唐津郡 合德學校、新平學校 泛川學校、順城學校 合德小學校 各學校職員一同

唐津郡合德市 海洋代理店 高橋正一

唐津郡合德面城東里 朴成來

唐津郡泛川面細梯里 韓羲命

唐津郡 新平面長 姜信九

唐津郡 泛川面職員一同

唐津郡合德市 湖西醫院 崔炳斂

唐津郡 泛川面長 鄭轍好

忠南唐津郡合德面雲山里 千代田生命保險相互會社 合德代理店主幹 朴漢圭 振替京城三三二一番

唐津郡 合德面職員一同

唐津郡合德市 貨物自動車部 韓光洙

唐津郡合德市 公醫 申鉉直

唐津郡泛川面倉里 兪壽命

唐津郡 順城面長 尹柱承

唐津郡合德市 洪寅杓

唐津郡合德面新里 朴榮來

唐津郡泛川面倉里 崔升鎬

唐津郡新平面金川里 李山天

唐津郡新平面巨山里 李景求

唐津郡泛川面倉里 權寧濬

唐津郡合德市 合德東兄弟商會 鄭[illegible]

唐津郡泛川面[illegible]里 許[illegible]

滿鐵의運賃改正으로 輸出貿易에大打擊

特히砂糖輸出品에重大影響

平南産業課서猛反對

【平壤】만철(滿鐵)에서는 이월일일부터 전조선을 통하여운임의 대개정을 수행하여 현재의차급(車扱)사등급을 특등급으로 개정하여 일부를 나추운것도잇스나 반대로 놉하진것이 거의 전부이며 더욱이 사탕(砂糖)과 가튼것은 급수가 그대로잇는반면에 안동(安東)에서 접속수수료(接續手數料)로 이십오전식징수하게되여 일본제당(日糖)이 일년간 밧는 손해가십만원이상에 달하는터이다

이밧게도 수출품에대한 영향이 막대한터이므로 평남도산업과에서는 조마경제의립장에서 이런운임의 개정은 충분히고려할필요가 잇다하여 장문의 전보를 총독부척식국에다 전하여 만철의 반성을 구하게 햇고 일방 상공회의소에서도대책강구에 궐기하여 저지운동을 이르켯다 한다

元山商校卒業生 就職處全部決定

【元山】언제든지 학창을 떠나오는 학교졸업자에게 일대두통을 주는것은 취직난이라는 세굴자인 오날조선에서도 오직 실업학교만은 취직률이 다소용이한 감이잇는것은 부인치못할사실인데 원산상업학교(元山商業學校)의 금년도에 졸업할 졸업의 수요소(需要所)는 공조선 만주의 각은행 회사 접도국 우편국등 인데 그중 수개소의 채용시험 미제처를 제해 노코는 전부가 발서 취직처를 결정하얏다는바 도리혀 이십여명의 공급부족이라는 취직전선의 대호황을 현출하고 잇다한다

古談가튼桃色奇譚 現代에掠奪結婚!

結局은誘拐不法監禁으로被訴

新春平壤의새話題

【平壤】산초평양에서 만드러진 듯기만해도 고소를 금할수업는 략탈결혼(掠奪結婚)일막이 연출되여 화제화하고잇다

평양부내 서성리(西城里)김병련(金炳璉)의 장남 김두성(金斗成)은 신양리(新陽里)대성(大星)양말공장 녀직공 리명옥(李明玉)(假名)의 어엽분자태에 황홀하여져서 엇더케해서라도 안해로마지할 결심을한후 부친김병련과 이야기하여혼담을 일으켯섯스나 명옥의 량친이 완강히 거절하엿스므로두성은 눈압히 캄캄해짐을 깨닷게되자 부친과 동생화실(和實)과 상의하고 다음과가튼 략탈결혼을 수행햇다

화실이는 명옥이와사이가 갓가운것을 리용하여 명옥을 자긔집에서 작년십이월십사일에 다려다가 감금을하여 이십칠일까지 부부생활을 계속햇다

명옥을 일허버린 명옥의부친은 이십칠일에 딸의행방을 발견하자 분함을 참지못하야 정조까지 헌신짝가티된 내딸의원한을 푸러준다하여 대동서에 유괴 불법감금죄로 고소햇다 대동서에서는 관계자를 취조한결과 행방을감초기위하여 수차나 명옥의 부모가 달려드러 딸을 내여노으라고 할때에는 두지(斗尺)속에 감초아두엇든 사실까지판명되여 고담(古談)을련상케하는 도색기담(桃色奇譚)으로 일반의고소를 금하지못하게 한다

鐵山邑內에大火 住家四戶를全燒

損害原因은調査中

【鐵山】지난 팔일 오후세시반경에 평북 철산군 읍내 중부동(鐵山郡邑內中部洞) 리지봉(李枝鳳)의 집에서 아지못할 불이 이러나 때마츰 서북풍이 강하게부러 불길은 것잡을 사이도 업시 동가의 상방과 창고를 전소시키고 린접한 리정근, 김진호, 리윤근(李貞根, 金鎭浩, 李允根)의 사호를 전소시켯는데 일시는 대혼잡을 이루엇스나 소방조의 결사적로력과 동민의 도움으로 네시반경에 진화하엿다는데 손해와 불난 원인은 당지 경찰서에서 방금 조사중이라하며 집을 이른 사람들은 대개 그날 벌어 그날 먹은 형편이므로 그들의 전도가 우려된다고 한다

停車前飛降타가 折脚되어危篤

【定州】평북철산군(鐵山郡)출생으로 현재의주농업학교(義州農業學校)오학년에 재학중인 정찬형(鄭燦亨)(二)은 정주읍내 모동무의집에 놀러왓다가 지난팔일 부산행 제사렬차 오후령시십구분 정주역착렬차를 타고오다가 렬차가 정거하기전에 내리다가 실족하여 긔차바퀴안으로 휩쓸려들어가서 두다리가 끈어젓는데 즉시 정주철도의원에 입원하야 응급수당을 가하는중이나 원체중상임으로 생명이 위독한상태라고한다

獵銃에人命危篤

【靑陽】지난십일일 오후삼시경에청양군 새양면 백금리압산에서 동면 신왕리에 거주하는 굴지내휴병위(堀地內休兵衛)란사람이 동면백금리 사는김영수(金永壽)와가티 노루산양을하다가 전긔김영수를 노루로잘못알고 렵총으로 쏘아 현장에 혼도하엿슴으로 즉시 은산병원에 입원시겨 타환일곱개를 빼여냇스나 생명이 매우위독하다고한다

趙書伯書畫展覽

【井邑】조선서화계에 일족이이름을 드러내지안하고 명예보다도 실제의예술에 대한 참다운 가치를 발휘할목적으로 자긔고향인 정읍읍내에 은거하야 우금이십년간을 연구에연구를더하고잇는 화가오정조영희(梧亭趙泳熙)씨와 씨의아들인오산조중태(梧山趙重泰)씨량화백을위하여전군내각유지 오십여명의 발긔로 량씨의 서화전람회를 오는십팔일 당지공회당에서 개최케되얏는바 지금까지의신청회원은 이백오십삼명에 달하엿다고한다

新寧繁榮會創立

【永川】경북영천군 신녕구읍은 천여호의 집단부락이나 지리의관계인지 그발전이 지지부진함으로 일반인사는 매양이것의발전책을 강구하야 온든중 지방유지의 발의로 지난 일일오일당지보통학교강당에서 번영회를조직하야 구체적활동을 하기로하고 임원을 다음과가티 선정하엿다한다

會長 韓濟東 副會長 宮山種美 評議員 黃在宗 外十四人 幹事 韓澤東 金士岩 顧問 玉木猜一郎 安太元 朴德根

十九歲少年縊首

【長湍】지난 칠일 오후십시경

二百指導者動員 百餘處夜學開講

收容人員二千五百餘名의多數

江華郡民의啓蒙熱

【江華】강화군내에잇서 농한기를 리용하야『배움터』이란스로간으로 계몽운동을 이르키고잇는데 그동원수가가지도자 이백이십수인에 배움을 밧는수는 이천오백사십인이라는 수효이며 이들의 모이는곳 일백팔십팔개소로써 본지국으로부터도 이운동에 성장을 위하야 심수곳에다 본사제정의 문자보급교재를 배급하야 만흔 호평을 밧고잇다。그러고 이제 지난해 십일월말 현재로서 조사한 수효를 보면 다음과 갓다。

府內面	一七所	一三三人
仙源面	一三所	一四二人
佛恩面	一四所	一四三人
吉祥面	九所	一三五人
下道面	一六所	一三三人
良道面	二〇所	三七七人
內可面	五所	九一人
河岾面	二一所	二一八人
兩寺面	八所	一三〇人
松海面	一三所	一六〇人
喬桐	二四所	二七〇人
三山	一三所	一四五人
西道	三所	六〇人

開城府內에大火

倉庫等八戶全半燒

損害總額六千餘圓

【開城】지난십일 오전십시이십분경에 시내궁정(宮町)삼백오번지리정수(李庚壽)의 집에서 발화하야 목물창고(木物倉庫)일동외 륙호가 전반소되고 동십이시분경에 진화하엿다는데 손해는 약칠천원에 달할이라하며 원인은 실화로 판명되엿다는데 피해가옥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全燒	宮町三〇五ノ一二號	閔內賢木物倉庫
同	三〇五ノ一號	趙興福
同	三〇五ノ三號	金基中
同	三〇五ノ五號	朴順汝
半燒	宮町三〇五ノ二號	李庚壽
同	三〇五ノ四號	金淑嬉
同	三〇五ノ六號	李七根
同	三〇五ノ七號	金根鎬

七十翁이失戀하고 끔찍한殺人未遂

【平壤】고희의고개를 넘은 파파로인의 살인미수사건이잇다─순천군 자산면풍덕리(順川郡慈山面豊德里) 리창근(李昌根)은 그안해 조덕신(趙德信)을지난 삼일오전열시경 낫으로 머리 가슴 몸등을 다치는대로란자하여 빈사의 중상을가하자 녀자는 부근 주재소에신고 하고저 다라나는것을 또다시따라가서 이번에는 손칼로란자하고 살인미수범으로 체포되엿다

여생이 만치도 안흔 로인이 무엇때문에 무서운 범행을 햇슬가?

두사람은 수년전부터 부부생활을 계속하든바 작년륙월경부터 안해가 동리 오인영(吳寅泳)과 관계를 햇슴으로 별거하엿스나 동거중 사든집한채를 중심으로 소유권쟁탈전을 개시하여 법정에서 승부를 다토다가 녀자의 승소되여 집을내이라고 녀자는 남자에게 성화가티 독촉하므로 미리부터 녀자를죽이려고 준비하고잇든터이라 전긔와가튼 참극을 연출한것이라한다

인에 아직알수업다고한다

설중이라고한다

大連基督敎會堂 寄附金募集許可

【大連】대련시에 조선인 긔독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하야 관동국(關東局)에 건축비 긔부금 모집허가원을 업마전에 제출하얏든바 작년십이월 이십칠일부허가되엿는데 모집에대한 규정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一、募集目的 敎會堂建築費에充當
一、募集金額 五千圓
一、募集期間 許可日부터一個年
一、募集地域 關東州及 鐵道附屬地
一、募集從事者 金世鴻 金濟道 朴用俊 金翰熙 玄濟邦 金善福

淮陽地方에는 麻疹까지猖獗

【淮陽】회양군(淮陽郡)일대에는 긔후가 급차이 치워지면서부터 악성독감이 류행되여 부락마다 신음치 안는집이 업는 형상인데 설상가상으로 마진(麻疹)까지 창궐되어 일반은 크게우려 중이라한다

樵夫慘殺犯逮捕

【忠州】지난 륙일 오후한시경에 충주군하 조령(鳥嶺)산중에서 나무하려간 사람을 때려죽이고 그사람이 나무를 실코오라고 다리고 갓든 소를 빼서가지고 종적을 감추엇슴으로 괴산경찰서와 충주경찰서원 전원이 총출동하야 엄탐하던바 지난 칠일 오후두시경에 경부문경시장에서 체포하야 방금 충주경찰서에서 엄중히 취조중이라는데 범인은 충주읍 단월리에 거주하는 도박상습자 피룡운(皮龍雲)이라하는사람이고 피해자는 괴산군 상모면 화천리김모(金某)의집에서 고용사라하는전세영(田世榮)이라한다

地方人事

◆尹星漢氏(巨濟漁業組合理事)一月九日高城郡杆城面上里自宅에서逝去

酷寒의繼續으로 永興에毒感猖獗

患者數千、死者도多數

【永興】북조선일대에는 례에드문 혹한이 습래하야 한란계의 수은주는 영하십칠팔도란 긔록을 뵈이고잇서 류행성、악성감모가 이혹한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세로 창궐하고 잇는데 현재 영흥군내만도 신음하고잇는 환자가 수삼천명에 달하리라는바 벌서 그중사망자도 다수에 달하엿다하며 개중에도 특히 빈궁민들은 구세말을 당하야 경제적 쪼들림과 추위와 독감으로 상사중의 곤경을 밧고잇서 실로 그전도가 우려된다고한다

酷寒의繼續으로 지푸데리─猖獗

【稷里】일긔가혹한한 요지음 리시내에는 지푸데리─가 류행되여 구랍(舊臘)에 발병하여 금년에 이미사망한자가 벌서두

安州의歷史的特産 絹織界의大活況

年産額十萬圓을突破

【安州】평남안주는 명주(明紬)항라(亢羅)등의 특산지로 이름이놉흔바 근래 인조견에 타격을몹시바더 약칠팔년동안을 종식상태에 빠저잇든바 작금년부터 안주군각처에는 견직업이성행하야 그산액이 상당하다는데 동면룡흥(東面龍興)을 수위로맹주(孟州)와 안주읍 서선염직소(西鮮染織所)등 십여공장에 직공약삼백여명이 잇서서 년산십만원을 돌파하리라하며 안주에서 견직중 수위를 점하는 온주(溫紬)와 칠색주(七色紬)는 멀리경성과 평양등지에 만히수출되다고한다

子宮病은女性의 健康을 害하고 姙娠을못하게한다

─누구던지읽으시라─

●子宮病의 原因과治療法

子宮病이라는것은 婦人生殖器와子宮에關係되는疾病을 말하는것인대 그種類가 여러가지잇는中 第一 만흔것이 子宮內膜炎이라는것입니다。이病은 月經時에不注意와産前産後의不攝生 流產、難產、房事過度、或은 男子의淋疾에感染되어 發生하는것인대 初期에는下腹이 압흐고 局部附近이빠치고 땅기며 大小便이잘通하지안흐며 局部에서는白帶下를이 나오기도하다가 내종에는이것이 점점病疾이되여白帶下로부터黃帶下、赤帶下、靑帶下로變하며 惡臭가나게됩니다 이러케되면 자연히두통과현긔가나며 神經過敏、消化不良으로身體는점점衰弱하야 모든疾病이續發하게됩니다 또한子宮內膜炎의分泌物即帶下症의 害毒은 精虫을殺死식히므로 不姙症이되거나卵巢와 喇叭管에故障이生하야 一生에子女를 出産치못하고 不幸에빠지게됩니다 이와가튼病이 갈수록부인은 身體가 날로衰弱해저서 얼골에도 화색이업고 手足이冷하고제리며 腰痛腹痛이생하고 月經이不順하게되니 남들은다한숨과눈물로써 민을하며 지금까지平和한家庭도 子女를出産치못하는 낫으로차차不和하게되여、甚하면 시부모와男便에게 소박까지맛는수가허다하오니 하로바삐治療를 게을니말것입니다

이와가튼 難治에子宮病을 治하기에는 東洋婦人의體質에가장 適合하게理想的으로製造販賣하는 藥이『命之母』가잇습니다 『命之母』로말하면 三十餘年의 긴歷史를가지고 東洋婦人患者는 勿論이오 西洋婦人 患者들께서도 服用하시고 子宮病을 全治하시고 愛兒를 出産하신 實例가허다한은 世人에好評과 本舖에到着한 禮狀과 愛兒의寫眞이 證明하오니 여러분家庭에 子宮病患者가잇스면 하로밧비『命之母』를試服하시고良効에全快하시기바라나이다.

九年間신고하던 子宮病이 全快되여姙娠햇소

平北碧潼郡碧北面……金鶴壽氏夫人

나는月經不順과 대하증으로 結婚後九個年동안 신고를하던中 千萬가지藥을 다써보앗스나 조곰도差度가업서서 비관하던中新聞廣告를보고『命之母』가子宮病에 有効하다는記事를보고最後로一次注文하야服用햇더니 얼골에화색이돌고 원긔가나며 허리와배압픔이나스며 대하증이 차차줄고 월경이고르게 나오더니 二三삭後에姙娠하야 出産하고 不和하던家庭이 平和롭게되니『命之母』가子宮病에 絕對的有効함을 信用하고 世上에 宣傳하는中이올시다 (寫眞은本人)

命之母는 全國有名藥店에서도 販賣하지만 特히本舖로 注文하실때는 藥代金을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또는小爲替로보내시는것이 第一安全하고 便利하오나 適合한藥을 指定못하시는때는 病勢를자세히 記入해주시면 代金引換으로 適當한藥을 付送합니다

今日─이新聞을보시고

郵封하야 五厘切手부처서東京市京橋區入船町三‧命之母本舖로 보내시는분 또는 葉書로 申込하시는분에게 三大醫學博士가 자세히 쓴婦人病自宅治療書와命之母의 說明書를누구에게던지無代進呈합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輪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腦神經衰弱과 產前產後에 婦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三十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船町三 命之母本舖‧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56)一八八七番

禮山

禮山郡光時面瑞草井里 大峯金鑛 金智泰

禮山驛前 大同精米所 朝鮮日報禮山支局 成春慶

禮山郡禮山面禮山里 成元慶

禮山郡大興市 尹文榮

禮山 禮山稅務署 禮山酒造組合

禮山驛前 精米業 成觀永

忠南禮山 綢緞布木 布木雜貨 郡散賣商 金興國商店

禮山 禮山郡廳職員一同

禮山郡吾可面佐方里 任命鎬

禮山驛前 朝鮮料理 太西館

禮山郡大興市 尹暾求

禮山郡新岩面龍宮里 金石煥

禮山郡禮山面禮山里 梁泰福

禮山郡禮山面禮山里 崔圭錫

禮山郡大興市 禮山釀造株式會社 大興分工場

禮山邑內 海陸物產紙布木御菓子 東昌商店 金盛根

禮山 金興模

禮山郡禮山面禮山里 王浚

禮山 文泰興 電話七六九番

新義州

新義州眞砂町四 誠濟內科醫院 院長 劉義順 產婆 白信一 電話九五一

新義州 第一基督青年勉勵會 第一基督中間勉勵會 第二基督女中間勉勵會 第二基督少年勉勵會 第二婦人傳道會

旌善

旌善郡農會

江原道旌善郡東面乾川里 素金鑛業所 鑛主 吳昌殷

江原道旌善郡東面畵岩里 畵表鑛山 鑛主 黃達用 具泰弘

江原道旌善郡臨溪面 樂川金山事務所

臨溪酒造組合

江原道旌善郡臨溪市 姜昌熙本店

柳田洞金山事務所

江原道旌善金融組合長 洪淳範

善興商會 主 權永鎬

江原道旌善郡 三省醫院 醫師 金英煥

旌善酒造組合

江原道旌善邑 綿絲布 百貨金物 雜貨 姜昌熙旌善支店

臨溪郵便所

道會議員 崔鳴集

江原道旌善邑 藥種貿易 參茸唐草 愛命堂藥房 主 朴容德

江原道旌善郡東面 畵岩醫院 嚴老星

江原道旌善郡東面畵岩市 永興商店

金明鎬

金保羅

宋得燦

金永職

土改事業中止와그實蹟
高利債重壓과 水利組合經營難 (三)

……洪鍾仁

七、地主의運動

本來부터 高金利에依한 組合債務者의 소래가 놉흔터에 昭和五年 財界一般의 恐慌이 農業部面에 一層深刻히 나타나며 米價의 暴落은 餘地업는 慘落을 보이엇슴은 旣知의事實이다。그리하여 水利組合 計畫當初의收益探算의 基礎가 되엿든 正租價 十圓乃至十二圓이란 數字는 다시 차저볼길도 업시 거이그 半價인六圓臺에까지 떠러지게되니 本來 都市經濟에 對하여 債務者의 立場에 서잇든 農村經濟는 一般的으로 恐慌의 窮地에 빠지며 農民들은 農業經營自體의 損害를 부르짓게되엿슴은 더말할것도 업거니와 더구나 問題되는 水利組合員된者는、農民의 窮狀如何는 不關爲怡으로 規定대로 督促이 星火가튼 水利組合費에 몰을곳을 몰으게되엿다 이에組合員의 水利組合이 잇슬 組合當局은 組合員의것 만이 안이엇다는 敵對觀念이 組合員間에 膨脹하엿다。卽組合員들은、高利의 組合債에 依한組合經營이 土地를 殖銀이나 東拓에 典執한 經營方式이 잇는 合을 몰랏든것은 아니다。이러한 農民의 窮疲를 當局에 訴하여 農民의 窮疲를 몰을 餘地를 못가진 組合費督促은 結局土地改良事業이 官僚를 流한金融資本의 支配下에 잇슴을새삼스럽게 깨다럿다。그리하여 組合의 評議會等의 決議의 對策도 何等의 效果를 내이지 못하게되매 이르러 組合員들은 獨自的으로 地主會等을 組織하여가지고 道當局에서 다시 總督府當局에 組合救濟의 大衆的 運動을 이르켯다、卽 最初의 烽火를 들은 平南大同郡의 美林水組地主會를 爲始하여 各地에 蜂起한 水利組合地主小作人들의 自衛運動은、組合費延納、減免、또는組合債償還期間延長、組合債償還期延을 低利債借換、組合債償還期延長의 具體策을 가지고 當局에 嘆願하엿다。그러나 當局에서는 最初에 『拒絶』과 『考慮』로、土地改良事業 計畫當時 農民에게 事業宣傳하엿든『體面』을 維持하려고도 하엿다。그래서 當局이 이에 對한 應急策이 밧비 서기前에 自起的水利組合가튼곳에서는 組合費不納에 依한 差押、競賣騷動까지 이러나게되어 事業自體의 本質的使命이 어데 잇섯는가를 못하지안흔 結果에서 疑心밧게 되엿다

八、當局의 對策

이에 當局으로서도 對策이 업슬수업섯다、農民의 運動의 效果라할까、當局의 善處라할까、何如間 이러한 農民運動의 위뚤이어 當局의 對策은 實施되엿다 卽昭和五年度中에 地主의 實收益(總收益의 六割)에서 生產費(公課、肥料代、管理費)로 反當平均約四圓以內를 控除한 殘額全部를 組合費에 充當하되 그래도 不足할時는 該不足額에 相當한 組合費의 延納을 認定 하는 外에 經費縮少 臨時 賦課保留、積立金 積立停止、償務償還期間 及 償還期間 延長等의 方途를 取하며 또 그래도 歲入이 不足할時는 新規起債를 하기로하엿다 其外에 組合의 正租를 組合에서 保管하고 低資를 融通하여 組合費充當의 方途(物納制)도 取하엿다 그리고 昭和六年에와서도 大體以上과 가튼 方法에 依하여 地主의 全收穫의六割에서 組合設置前의 收穫量의 五割을 控除한것을 地主收益으로하고 十月初旬 時價換算에서다시 增收에 必要한 營農費의 增加額을 控除한額으로써 組合費를 事業에 依한 增收額으로 하는 方法을 썻나 이에서 비로소 農民經濟를 돌아본政策이 나타나섯이다。

◇

이와가치 하는동안 昭和五年度에 百二十八組合中 讓入缺陷을 본組合이 二十五組合인에 缺陷額이 八十六萬二千圓、이엇고、昭和六年度에는 組合數 百五十三組合中 組合費減免한것이八十八組合에 組合費源額 八百八萬一千餘圓中 減免한것이 三百七十五萬六千餘圓으로 該當額의 四割六分에 該當하엿다。그러고 以上 減免에依한 不足額은 新起債 一百二十一萬八千餘圓으로 補塡하엿다。 ―(계속)―

米國金準備法 一年延長을布告
資金運用、弗貨金含有量變更의 大統領權限도延長

【華盛頓十日發聯通】루스벨트 大統領은 十日金準備法을 一個年延長케할을 布告하엿다 그結果 爲替平衡資金運用及 弗貨內金含有量을 變更케할 大統領의權限은 다시一個年延長케될것이라고한다

인플레解消?
軍人恩給法案通過로 外國爲替市勢一齊高

【紐育十日發同盟】지난九日 弗貨平價 再切下說로 急落한 弗貨는 그뒤 모겐소財務長官의否定으로 多少 昻騰할形勢이엇다 十日에 軍人恩給法案이 壓倒的多數로 下院을 通過하야 인푸레念慮로 다시 軟化하고 이에作하야 外國爲替市勢는 一齊히 昻騰한바 그中 米英爲替는 四弗九十五仙半으로 止한바 이것은 前日보다 半仙高에 該當하며 또米日은 一仙이 昻騰하야 二十九弗一仙에 達하엿다

▲大阪爲替(十一日)

	賣	買
對米	廿八弗八分七	廿八弗十六分十五
對英	一志二片卅二分一	一志二片十六分一

米日爲替續騰

【紐育十日發同盟】十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廿九弗一仙으로 一仙高 買廿八弗八十九仙으로 一仙高

▲東京爲替(十一日)

	賣	買
對米	廿八弗十六分十五	廿九弗
對英	一志二片卅二分一	一志二片十六分一

現銀海外輸送 依然旺盛狀態

【天津十日發同盟】天津의確報에依하면 中國의現銀은 依然英米兩國에輸送되야 米國에는 十二月末 二千二百五十萬元 一月七日一千萬元 프레시덴트 그란드號로 上海에서輸送된 事實이잇고 一月末까지는 總額一億六千萬元에 達할것이라하고한다 또英國에는 六百五十萬磅을 보내다고 하며 北中銀만으로도 上海에 集中되것이 八百五十萬元에 達한다 이事情으로보아 現銀의 國外流失은 依然 續行케 될것이라고한다

米穀三大調查 制令을公布
◇……調查員二萬人

農林局의 米穀關係三大調查인 生產、移動、現在高調查는 新年度米穀課新設劈頭의 大事業으로 豫算二十二萬四千圓을 計上하야 實施키로되바 右調查에 잇서는 日本內地의 現行法規에 準하야 各其制令을公布 從來不備의點을 是正하며 米穀統計의完璧을 期하기로되엇다 그러고 該調查는 調查員이 實로二萬人에 達하는 廣汎의것으로 調查槪要는 左와如하다

一、生產調查＝作況、豫想、實收의 三調查는 中堅人物 一萬九千餘人을 調查員으로하고 二百二十人의 指導員을 置함

二、移動調查 動態의 新調查는 穀物檢查機能을 活用하야 調查員 七百五十名 指導員 二十八名으로서 行하는 月間移動調查이다

三、現在高調查＝三千五百餘人의 調查員 指導員 二百二十人으로서 現在高의 正確한調查를 行함

그리고 右三調查의 制令公布와 同時에 生產費調查에 對하야도 法令을 公布할 豫定이라한다

土性調查
農林局實行計畫

朝鮮農業界의 懸案인 土性調查는 旣報와가티 十一年度부터 十個年計畫으로서 國費百二十萬圓道費百二十萬圓合計 三百四十萬圓으로써 全朝鮮百六十萬町步의 全耕地에 亘하야 調查를 實施키로될 農林局에서는 目下 그準備工作을 빨리하고잇는데 同調查의 實行豫定은 다음과갓다

十個年計畫에 依하야 最初五個年에 現地踏查 今後五個年에 施肥選方策作成 土性圖完成의 計畫인데 그方法으로

一、現地踏查班＝十年度로부터 十六班을 編成、道技手一、雇員二名으로 一班으로하고 一班의調查能力은 一個年二萬町步 五個年으로 全朝鮮全耕地가끗내일豫定이다 現地班은 土壤採取의 現地調查

二、採取土壤分析班 水原農試內에 化學分析二班을 設置하야 採取土壤의 化學分析으로하고 一年三十二萬二千町步를끗내일豫定

三、現番肥料試驗調查

四、處方策作成班＝上記一、二의 調查에 基하야 現地關係에委囑하야서 施肥試驗과 管理試驗을 하고 이것으로써 水原農試에서 調查結果를 綜合하야 土性圖를 作成

右調查가 完了하면 施肥二億圓에 達할 朝鮮農業은 가장進步的施肥가 할수잇게될 것이라고한다

新義州貯木場
二割五分國庫補助

新義州의 鴨綠江材貯木場은 現在 府營의것과 三井物產의 貯木場뿐이어 貯藏能力이 顯著히 僅少함으로 昨年의 流材와 如히 損失을 招致한데 鑑하야 鴨綠江木材產業組合에서는 今番 東拓으로부터 融資를 엇는同時에 國庫補助를 어더 大貯木場을 設置하기로되엇다 建設費는 全部 二十萬圓으로 二割五分을 國庫補助에 仰하기로 되어잇는 것이 完成되면 洪水의 危險은 거이업서질것으로 關係方面으로부터 期待되고잇다

殖銀米資 貸出激增
新記錄을出現

殖銀의十二月末現在米穀資金貸出은 低利資金一千七百四十一萬圓 自己資金一千七十七萬圓 合計二千八百十八萬圓인데 前年末에比하야三百九十五萬圓增加、前年度中의 最高殘高二千五百萬圓에比하야 三百十八萬圓의增加인데 同行米穀金融의新記錄을 맨드럿다

貯銀不動產貸
五十餘萬圓限度

貯銀은 今期決算에잇서 法定準備金 五萬五千圓 特別積立金五萬圓 配當平均準備金一萬五千圓合計十二萬圓의 積立金인데 이로 同行의 積立金合計는 五十四萬圓으로 되엇다 同行의 不動產貸은 十二月末二百五十二萬六千圓임으로 同行의 不動產貸限(拂込資本金과 積立金의合計)은 五十餘萬圓이라함 餘裕가 생기로 되엇다

朝鮮米生產費 比前年低下
矢島農林局長談

外地米生產費 調查協議會에 列席할 矢島農林局長、山澤農產課長、石塚技師等은 十一日午後三時發渡東、十四日 內閣調查局에서 開催할 右協議會에 臨할려인데 出發에앞서 矢島農林局長은 如左히말하얏다

內閣調查局이 生產費協議會에 參加함은 처음듯는소리로 意外이나 農林、拓務兩省의 關係及外地米生產費의 重要性으로 調查局에서 行하게된 것이아닌가한다。從하야 形式的의것에 不過하고 再次 特殊事情의 詳細說明과 如한 繁雜은 省略되리라고 期待되다 朝鮮米生產費는 去十日에 集計를 完了하얏는데 通算을 보면 昨年度의 生產增加에 依하야 相對的으로 低下되엇다 얼마라고는 말할수업나

產業懇談會結果 討議할問題、方法
意見交換程度로終了

產業懇談會는 旣報와 如히 十日開會가 繼續되야 十一日도 連續協議할 豫定이더니 出席者의 參加形便도 잇서 昨十日로 써끗을 맛치게되엇다 同會議의論議對象은 廣汎에 亘하야 이次의 會議로서는 到底히 바랄수업고 이때문으로 明年度에 產業調查會가 設置되는것으로 이번의 懇談會에서는

一、朝鮮產業調查會에서 調查討議할 問題와 方法

二、當局의 重要問題에 對한 民間權威의 隔意업는 所見

의 二點이 第一日의 懇談에서 明白히되엇슴으로 一旦 이로끗을 맛치엇다

그리고 第一日의 午後는 日本內地와 朝鮮 產業統制問題에對하야 有賀殖銀、賀田商議、朴商銀、宮林、韓朝鮮生命諸氏의 意見의 開陳이잇섯고 繼續하야 中小工業問題와 中小金融問題(賀田商議會頭) 水產開發(西田場長) 山林金融과 林利開發(擴木場長) 鑛產과 鐵道問題(山村場長) 農業의 集約高度化와 加工業問題(湯川場長)로 各히開陳이 잇고 午後五時에 散會하얏다

米移出數量激增
粟輸入도顯著增加 ◇……今月上旬中狀況

【總督府發表】一月上旬의米輸移出은 三十四萬五千三百十三石으로 十二月末의無務가變하야 前年同期보다 十四萬二千石의激增을 示하엿스며 또 粟輸移入도 三萬四千餘石으로 前年同期보다 二萬一千餘石의增加이엇다(以下單位石)

	今年	前年
▲米輸移出高 上旬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上旬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上旬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通貨安定問題
◐……債務國으론不可能

通貨安定問題는 金블럭危機와 共히 一九三六年을 넘어와서 依然히 世界經濟의 懸案인바 로이스銀行月報에 나타난R・H・뿌란드氏의 見解를 紹介하면 다음과갓다

×

元來 金本位類似의 制度에歸하던지 或은『管理通貨』에 依하던지 方法은 何如間世界主要國通貨安定이 維持되는것의 價値가 큰것은 議論할餘地가 업다。戰爭과 重大한 政治紛爭에依하야 混亂되지안은 平時의世界－各國이 財政과 經濟의均衡을 維持하고 갈때에는 爲替의 安定은 通常의 努力으로 自然히 維持된다。그러나 까까운將來에 非常한 政治不安과 戰爭이 豫想될때에는 各國이 第一로 考慮할것은 富國의 生產이 아니오 國防과自給自足이다。如斯한 境遇에는 外國 特히 自國과 紛爭을生할 危險이 잇는나라와 關係가 적으면 적을수록 自國에 有利하고 紛爭의 發生하엿슬때 受할 打擊이적음으로 此際의 基本問題는 財政과 經濟問題가 아니오 찰아리 政治問題이다。從하야 現在의問題는 通貨의安定自身이 조흐나 납부나를 말하는것이 아니오現在의世界狀態로 지금通貨安定을企圖함이 조흐냐 납부냐 그것이 維持될수잇느냐업느냐에잇다。

×

一九一四年까지 世界는 金本位를維持하고잇섯스나 大戰이 이것을 紛碎하얏다。一九二九年까지에 一應金本位를 再興하얏다고 信하얏스나 그後再次崩壞하얏다。그러나 本來이면 第二回재에 金本位를再興키前에 金本位를 崩壞식힌原因이 消滅되어야 안되엇스나 새로운 不安의原因이 생기엇느냐를 研究할 必要가 잇섯던것이다。

×

大戰의 結果 起한通貨價値下落의二大原因은 紙幣及銀行信用의 過度濫出과 過度의對外債務이엇다。佛及法의 低落은 紙幣及銀行信用의 過度의膨脹의結果이오 馬克及中歐諸國通貨의崩落은 兩方의 原因이 함께 惹起된때문이다。一九二三年으로부터 一九二九年까지의 사이에거의모든 貨低落國이 金本位에 復歸하얏다。그러나 이金本位復歸가 時期尙早이엇던것은 通貨制度의 背後에잇는財政經濟狀態가 아즉 全然安定되지 안엇던것으로보아 明白하다。

×

大戰의結果 世界는 너무도厖大한 債權國과債務國으로 난……우이어 一時的 好景氣는 債權國으로부터 債務國에 對하야 繼續的으로 多額의 貸付를 行하야 비로소 維持되엇던것이다。그럼으로 그貸付가 끗나자마자 忽然世界의 政治經濟機構가 動搖키 시작하얏나니 顯著한物價下落의 結果債務國은債務支拂이 去益困難케되고 外國債權者의 債務支拂要求에 應할수업서 一國一國이 秋風落葉가티 金本位로부터 離脫하얏다。英國만은 例外이엇스나 英國은 充分한支拂能力이 잇는 大債權國이엇스나 그러나 그것에對하야 適當한對策이엇다는 風說때문에 倍한 信用이 一般的으로 失墜하야 銀行預金은 大量으로부터 引出되고 드듸어 金本位를 離脫하얏다(續)

安奉線運賃改正
朝鮮對滿貿易打擊

二月一日로부터 安奉線運賃은 現在의 三級制로부터 六級制로改……

貿易協會昨年斡旋高

朝鮮貿易協會가 滿洲國에 對한 朝鮮產品의斡旋高는 昨年十二月中 米二萬八千五百七十三圓 林檎六千二百二十九圓 以下百八十八圓其他를 合하야 合計三萬……

今日財界 (十一日)

[illegible]

經濟界消息

○貯銀定期總會＝朝鮮貯蓄銀行은 一月二十五日 定期總會를 열고 利益金分配案과 光州支店 設置의件、取締役一名缺員補選의件을 附議할터인데 株主配當은 年八分으로內定하엿다고

○貿協理事會＝朝鮮貿易協會에서는 十五日午後一時부터 京城商議特別室에서 理事會를 열고 다음과가튼事項을 協議하엿다고

一、滿鐵運賃改正에關한件

一、昭和十一年度事業計劃方針에關한件

商況 (十一日)

株式 軍需株高로 急騰

前場急騰 今前場은 外電의 米棉高、스톡高로조코 綿絲反騰이며 軍需工業株 暴騰으로 買氣를 刺戟하야 一齊高氣를鼓舞코 急騰하야 結局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 二圓二十錢高인 百七十六圓四十錢、日產 七十錢高인 七十四圓六十錢、大新 六十錢高인 九十四圓八十錢、朝新不變인 三十圓七十錢에 各大引、鐘新은 百五十圓五十錢에 好勢이엇다

後場休會 後場은 土曜例休

日英同盟說로 株界明朗化

【大阪電話商通】軍縮會議決裂狀態의 裏面에 日英同盟說을 孕하야 市場人氣는 依然 明朗化하야 現物市場은 低金利를 背景으로 遊資家側의 物色買旺盛을示하고 將來의軍縮景氣를 織入하야 重工業化學工業株는 引締되고 淸算市場도 恢復模樣을呈하얏다

軍縮決裂直面 軍需工業株活況

軍縮會議는 日本의 脫退가 明白케되엇슴으로 軍需工業株에 一層買氣를促하야 一齊昻騰의 活況임으로 今前場은 休日을 압두고外電高와 相俟하야 이것의好感이東新에 移하야 百六十六圓臺로急返되엇스며 鐘新도 一百五十圓臺恢復을 보앗는데 日產、大新은伸惱模樣이엇다。

東新의動向은 果然어떠할가

[illegible]

市場六感

[illegible]

期米 昨年高價上廻
大阪三十二圓突破

前場續强 昨後場 阪地三十一圓九十二錢止와 共히 二十九圓六十七錢에 寄付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九十六錢인 四丁高를 봄 이 高報에 依하야 二丁高하고二十九圓六十九錢인 二丁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九十一錢까지 小強하엿다가 二圓〇二錢에 頑强히 止場함을 伴하야 昨年度의天井價인 八十錢에 强硬히場을止하엿다

後場續强 後場은 二十九圓八十五錢에 昨年最高價를上廻하야 前引보다 五丁高로始場後 三、四節八十錢에 强하얏다가五節八十五錢으로 八十八錢에止場하다

三十二圓突破 伸惱이며頑强

[illegible]

正米出廻稀薄 舊臘도不拘?

[illegible]

好材로輕斷은 一考를要할일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illegible]

實物株前場取引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保合 / 仁川同調 / 木浦强含 / 群山底固 / 大邱續騰 / 釜山不變

[illegible]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仁川期米 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 京城株式 金益證券株式會社

金融 (十一日) / 米穀 (十一日) / 商品 (十一日) / 株式 (十一日) / 期米 (十一日) / 各地正米

[illegible]